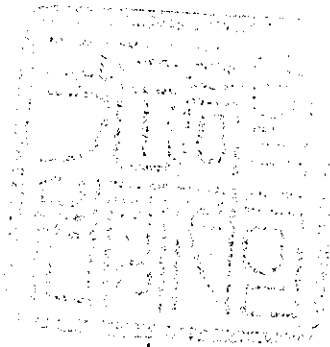


中·蘇關係의 變遷과 展望

1975. 7.



539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5年度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5. 7.

이 동 화

目 次

第1章	露西亞의 國土와 國民	3
1.	國 土	3
2.	國 民	13
第2章	東部 슬라브人들의 露西平原占住와 國家建立	29
第3章	露西亞人들의 東進的 植民活動	47
第4章	植民的 擴張의 積極化	69
第5章	露西亞의 아무르進出과 露清(中)의 遭遇	83



第一章 露西亞의 國土와 國民

一. 國 土

가. 平 原

世界地圖를 一瞥하면 우리는 過去의 帝政露西亞 卽 오늘의 蘇聯의 領土가 얼마나 廣大한가 함에 놀란다. 이와 同時에 우리는 同國의 地圖를 注意 깊게 살펴 봄으로써 二個의 뚜렷한 特徵을 發見할 수가 있는데 卽 하나는 그 國土面積의 엄청난 廣大性이며 다른 하나는 그 土地 및 河川分布의 特異性이다.

露西亞의 領土가 얼마나 廣大한가 함은 그것이 英國本土의 40 배 仏蘭西의 四十倍 美國의 三倍에 該當한다는 事實로 미루어서 쉽게 理解될 수가 있다.

그리고 同國의 이렇듯 廣大한 領土所有는 重大한 政治的 經濟的 및 軍事的 意義를 갖는다. 實로 露西亞와 같이 그렇듯 廣大한 國土를 領有한 나라만이 莫強한 敵軍에 對하여 所謂 縫深戰略을 成功的으로 實踐할 수가 있다.

卽 露西亞人들은 나폴레온과 히틀러가 侵入하였을 때에 實證된바와 같이 一戰略的 必要上 後退를 계속하면서 自己便 力量이 強化되고 敵側이 弱화됨을 기다려 敢然히 反擊으로 轉하여 強大한 敵軍을 擊滅敗退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리해서 露西亞人들은 많은 外敵들과의 武力對決을 하면서 그들의 國家建設을 이룩하는 過程에

서 - 권스턴·처칠의 表現을 빌면 - 『領土志面的 動物』로 變換
수도 있었던 것이다.

볼티해 또는 카르파티아山脈으로 부터 우랄山脈을 거쳐 東北太平
洋海岸에 이르는 廣漠한 露西亞領土의 總面積은 8,176,000 平方
마일로서 世界 總陸地面積의 6分之1에 該當한다. 그리고 이 廣大
한 領土의 大部分은 海面보다 若干 높을 程度의 平原地帶이다.

우랄山脈을 分界로 하여 露西亞를 「歐露」와 「亞露」의 兩部分
으로 나누는 것이 一般的 慣例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区分은
地形學的으로도 人種學的으로도 아무런 根拠를 갖고 있지 못하다.

東亞 兩露의 分界로 보아지는 우랄山地는 高山峻嶺으로 이루어진
큰 山脈이 아니라 海拔 1,500米에서 5,000米에 이르는 높이의
丘陵地帶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山脈은 큰 困難없이 넘
나들 수 있을뿐 아니라 스테프와 連結된 그 南端에는 『카스피아
海門』이 열려있기까지 하다.

보다 긴 歷史를 갖고 있는 「歐露」는 人口가 훨씬 더 稠密하
고 開發이 훨씬 더 앞서 있으며 「亞露」는 아직도 人口가 稀薄하
고 開發이 뒤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들 兩者를 区分할만한 充分
한 地政學的 根拠는 存在하지 않는다. 廣大한 平原地帶인 歐羅巴
露西亞는 길게 東쪽으로 뻗어 廣漠한 西伯利亞의 大陸平原과 連結
되어 있다. 이리해서 東西의 兩露는 하나로 融合되어 露西亞라고
불러지는 巨大한 『유레이셔』(歐亞)平原國家를 形成할 수가 있었
다.

廣大한 平原國家로서의 「유레이셔」 大陸에는 이렇다할 自然的 障礙物은 存在하지 않으며 따라서 露西亞의 이와 같은 國土構成은 그의 國家的 統一에 도움이 될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듯 廣大한 領土-「歐露」의 面積만도 實로 廣大한 것이지만은 -에 分散되어 있는 民衆을 連結統合하여 하나의 巨大한 統一國家를 建立하기 爲하여는 強大한 中央集權的 政治權力과 統治機關가 不可避的으로 要請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나. 氣 候

露西亞의 氣候는 大陸的이며 東쪽으로 나아감에 따라서 漸漸 더 추워진다. 東北西伯利亞의 겨울이 가장 추우며 最低 氣溫은 零下 90度에까지 達한다고 한다. 大西洋이나 太平洋은 露西亞의 氣候를 緩和할 수 있을 만큼 近距離에 있지 않으며 印度洋은 가로 막고 있는 山脈과 中央亞細亞의 沙漠으로 말미암아 露西亞의 氣候에 影響을 미칠수가 없다. 그러나 西伯利亞의 氣候는 人間的 居住를 不可能케할 程度의 것은 아니다. 低氣溫에도 不拘하고 이 地方의 하늘은 맑고 바람은 普通 세지 않고 햇살은 溫和하며 毛皮는 지어진 冬衣인 『돛하』(dokha)는 人들을 嚴寒으로 부터 保護하여 준다. 西伯利亞의 住民이나 旅行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冬節에 때때로 일어나는 狂暴한 눈보라 即 『부란』(buran)이다. 大體로 겨울은 고요하고 여름은 덥고 乾燥한 中部 西伯利亞가 太平洋沿岸地帶보다는 一層 더 살기에 快適하다고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後者의 境遇는 겨울에는 강한 바람 그
리고 여름에는 흐린 날씨와 안개와 비 때문에 生活上의 不便함과
不快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黑海沿岸地帶와 카프카
즈 地方을 除外한 東部 露西亞의 氣候는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
다. 露西亞의 「리베에라」로 불리는 크리미아地方의 氣候는 溫
和하고 快適하다.

다. 海 岸 線

위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露西亞 國土의 才一의 特徵은 그
의 土地 및 河川의 分布가 特異하다는 點에 있다.

露西亞의 가장 긴 海岸線은 北氷洋에 沿한 것으로서 그 全長은
4,000 마일에 達한다. 그러나 北氷洋 海岸은 制限된 軍事的 戰
略的 價値를 갖고 있을뿐 아직껏 充分한 政治的 經濟的 意義를
發揮하지 못하고 있다. 現代 科學과 現代的 碎氷船의 도움으로
北氷洋에서의 航路開設이 可能할 수도 있겠지 마는 그러나 이것은
먼 未來의 일 일 것이다. 1938 年에 있어서의 碎氷船 「세도프」 號의
悲劇的 運命을 目擊한 우리로서는 무르만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톡에
이르는 6,000 마일의 北氷洋 航路開拓이 가까운 將來에 實現될 수
있으리라고 믿을 수는 없는 것이다.

北氷洋의 긴 海岸線에 位置한 여러 港口들 中에서 오직 무르만
스크만은 未來에 對한 希望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
면 比較的 따스한 겨울에 限해서는 同港은 大西洋 海流의 惠沢을

입어 無休의 開港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핀란드灣의 沿岸水域은 每年 4-5個月間 結氷을 한다. 불틱海
岸의 리보우는 겨울에도 結氷을 하지 않는 不凍港이다. 그러나
嚴格히 말한다면 불틱海란 것은 大西洋과 連結된 하나의 湖水에
지나지 않으며 그의 主要한 出入口들은 獨逸의 管制下에 놓여 있
는 것이다.

南쪽 黑海沿岸의 港口들은 普通 正月 二月과 때로는 三月의 一
部에 걸쳐서 까지 使用이 不可能하다. 그리고 黑海의 出入口가
土耳其에 依하여 管制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서 特히 戰時에는
적지 않은 不利와 不便이 招來되지 않을 수 없다는 事實을 우리
는 留意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카스피海는 그 自身の 問題點들
을 갖고 있다. 첫째로 同海의 北部沿岸水面은 每冬 3個月以上이
나 結氷을 한다는 點, 둘째로 同海는 事實上 바다가 아니라 하나
의 湖水에 지나지 않는다는 點이 그것이다. 아조프海는 仲冬頃에
完全히 結氷을 하며 그 가장자리의 어름은 2, 3個月間이나 그대
로 남아 있다.

太平洋沿岸의 블라디보스톡은 훌륭한 港口이기는 하지만 每年 約
4個月間 結氷을 한다. 露西亞는 훨씬 더 便利한 不凍港 旅順을
一旦 掌握하였었지만 露日戰爭에서의 敗戰結果로 이를 다시 日本에
넘겨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로부터 40年이 經過한 後 帝政
露西亞의 後身인 蘇聯은 反과시즘戰爭인 才2次世界大戰에서의 勝利
의 結果로 해서 旅順을 返還받아 이를 中共과 더불어 共同利用하

게끔 되었다. 그러나 暖海에로의 이 『窓口』는 「歐露」로 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戰略的 및 經濟的 價值가 半波되지 않을수 없을뿐 아니라 蘇聯은 이 不凍港에 對한 權利를 早晚間 中共에 完全 返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위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露西亞의 거의 모든 港口들은 冬節에 적어도 冬節의 한동안은 結氷을 한다. 露西亞의 이와 같은 地政學的 弱點을 理解함으로써 우리는 그렇듯 끈질기게 不凍港을 追求하여온 그의 傳統的 外交政策의 核心을 올바르게 捕捉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 四大地帶

露西亞는 植物의 種類와 地質을 따라 便宜上 四大地帶로 區別될 수가 있다. 最北方에 位置한 것이 荒涼한 「툰드라」인바 이 地帶는 핀란드 國境으로 부터 北氷洋에 沿하여 東쪽으로 뻗어 베링海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툰드라」地帶는 露西亞 全國土의 約 10%를 차지한다고 한다. 사람이 居住하기에 不適當한 이 凍土地帶에서는 穀物栽培는 거의 不可能하지만 그 代身에 이 地帶에서는 主要한 輸出品目인 黑貂 白貂 黑狐 白狐 白狼等의 毛皮獸가 豊富히 生産된다.

「툰드라」南쪽의 才二地帶는 「타이가」(taiga)인데 이것은 주로 針葉樹로된 森林地帶를 이루고 있다. 이 地帶에서는 솔(松) 벗나무(白樺) 落葉松等의 여러가지 木村들이 生産되며 이러한

木村들은 化学工業 航空機工業 造船業 建築業等等 여러 工業部門
用 原料 乃至 資材로서 널리 使用된다. 그리고 이 地帶의 깊은
処女林들에서는 黑貂 黑狐 西伯利亞 다람쥐(栗鼠)等等의 高價한
毛皮獸들이 生産된다. 이 地帶와의 關聯에서 우리가 特別히 留意하
지 않으면 안될 것은 바로 이 地帶에 位置하고 있는 모스크바를
中心으로 하여 마침내 露西亞 帝國이 建立되었다는 事實 모스크바
를 中心으로 하는 바로 이 地域에서 露西亞人들 핀人들 歐羅巴人
들 等等이 渾然融合되어 健壯한 「타인」의 大露西亞民族이 形成
産出되었다는 事實이다.

「타이거」의 南쪽에는 草原과 沃土로 된 「스테프」가 있는데
이 地帶에는 우크라이나地方 돈江地方 및 볼가江地方等等이 包含된
다. 「스테프」에는 鬱蒼한 樹木은 없지마는 훌륭한 牧草 地帶와
肥沃한 黑土地帶가 있다. 그러므로 해서 自古로 『生活圈』(레벤
스라움) 志向的인 많은 民族들이 이리로 誘引되었으며 여기서 그들
은 가장 激烈한 鬪爭을 가장 오래 遂行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스테프」의 東쪽에는 乾燥한 氣候를 特色으로 하는 砂漠地帶가
있다. 카스피海 西岸 및 北岸地方과 아랍海 沿岸地方을 包含하는
이 砂漠地帶는 東쪽 투르케스탄을 거쳐 蒙古로까지 뻗어 간다.
東쪽에서 불어오는 無慈悲한 바람은 이따금 이 地方에다 旱魃과
飢饉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카프카즈 南쪽 即 黑海 및 카스피海의 南岸地方에서는 濕氣가 많
고 또 亞熱帶的인 氣候로 말미암아 煙草 柑橘類 및 相油等等이

生産되며 方便 乾燥한 亞熱帶地方인 中央亞細亞에서는 사탕수수 올리브油 및 扁挑等等이 産出된다. 露西亞의 많은 河川들과 湖水들에는 各種 魚類가 豊富히 棲息하며 카스피海와 또 이 바다로 흘러드는 볼가江에서는 世界的으로 有名한 魚卵 即 「캐비아아」가 産出된다.

上述한 各 地帶에 살고 있는 住民들은 그곳의 氣候的 條件의 制約下에서 그들의 生業을 選擇하지 않을 수 없다. 一의 「툰드라」地帶에서는 魚夫와 獵師가 圧倒적으로 많다. 二의 「타이가」地帶에서는 짐승잡이들 - 그물이나 함정으로써 하는 - 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 어느 程度 밭갈이가 可能한 곳에서는 - 農夫들이 많다. 三의 「스테프」地帶에서는 밭갈이 하는 農夫들이 일찍부터 主導的 位置에 설수가 있었다. 여기서 그들은 肥沃한 黑土로 말미암아 많은 利得을 보았으며 穀倉으로 불려지는 이 黑土地帶는 只今도 露西亞國民의 큰 部分을 扶養하고 있다. 그리고 이 地帶의 東쪽 部分에는 훌륭한 放牧地들이 있어서 半遊牧民들이 現在도 依然히 그들의 羊떼를 몰고서 이곳 저곳을 轉轉하고 있는 것이다.

다. 河 川

露西亞에 있어서 처럼 河川이란 것이 重要한 歷史的 役割을 遂行한 例는 거의 없다. 西部 露西亞의 여러 河川은 中部 露西亞의 沼澤地帶에서 發源하며 이 河川들은 - 定期的인 洪水期나 乾

南쪽에 있는 若干의 急流를 論外로 한다면 -넓은 平原을 悠悠히 흐르고 있다. 겨울이 오면 이들 諸河川은 結氷을 하여 旅客들을 爲한 훌륭한 通行路 設매들을 爲한 便利한 滑走路로 變한다. 歐羅巴 露西亞의 最北方에 있어서는 河川의 結氷期間은 9 - 10 個月이며 中部 露西亞에 있어서는 4 個月以上이다. 봄이 오면 쌓였던 많은 눈이 녹아 河川들은 자주 氾濫하고 적지 않은 災害를 일으키기도 한다.

自古로 露西亞의 河川들은 交通上의 大動脈 구실을 하여 왔으며 이들 水路를 통해서 通商과 移住가 自由로이 行해져 왔다. 이와 같은 水路들 中の 가장 著名한 것으로서는 드네프르江 불가江 西部 드비나江等を 들수 있지만 볼코프江 라도가湖 네바江 파이푸스湖 나르바江等等의 水路的 役割도 決코 낮추어 評價될 수는 없다. 여러 갈래의 主要한 河川이 合流하거나 近接해 있는 地點에 位置한 모스크바가 마침내 全國的 政治權力을 掌握함에 이르렀다는 것은 決코 理由 없는 일이 아니다. 그들의 國土가 그렇게 廣大함에도 不拘하고 露西亞人들은 이와 같은 水路들을 通하여 容易하게 서로 接觸하고 서로 交流할 수가 있었다. 露西亞의 많은 民謡들이 『고요한 돈』 『불가 어머니』 『魅惑的인 드네프르』等等을 읊조리로 있음은 偶然한 일이 아닌 것이다. 옛날의 商人들과 戰士들은 이들 水路를 利用하여 그들의 商品과 武器를 運搬하였으며 이 境遇에 그들은 보다 손쉽게 連水陸路 (volok -보올력)을 橫斷할 수 있겠끔 작은 배들을 使用하였다.

이리해서 이들 諸河川은 自然的 條件을 서로 달리하는 여러 地方 사이를 貫流하면서 이들을 經濟的 政治的으로 相互連結시키는 機能을 遂行하고 있는 것이다.

西伯利亞의 雄大한 河川들은 거의 모두 北氷洋으로 흘러들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의 經濟的 戰略的 價值는 크지 않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들 諸河川은 西伯利亞의 探査 및 植民化의 過程에 있어서 實로 莫大한 價值를 發揮하였으며 이들로부터 撈獲되는 豊富한 魚類는 土着住民들의 食卓을 꾸밈하게 하였다. 그리고 西伯利亞의 經濟的 開發에 있어서의 이들의 價值를 決코 낮추어 評價할 수 없을뿐 아니라 이들 諸河川의 價值와 役割은 漸次로 커지고 있음이 틀림 없을 것이다. 이들 大河川을 利用하는 巨大한 水力發電計劃이 蘇聯當局에 依하여 樹立 實施되고 있다는 事實은 이 點을 証示하여 준다고도 보아질 수 있을 것이다.

商業과 政治와 交化의 中心都市들이 河川들의 沿邊에 세워졌다는 것은 뚜렷한 歷史的 事實이다. 이리해서 키예프는 드네프로 江에 近接해 있고, 모스크바는 볼가江 體系와 連結되어 있다. 그리고 往年에 繁榮을 謳歌한바 있는 노브고로드와 포트르大帝에 依하여 建設된 페테르부르크 卽 오늘의 레닌그라드는 볼코푸-네바江體系에 所屬하는 都市 들이다.

二. 國 民

가. 起 源

露西亞民族의 起源에 關해서는 많은 論述이 試圖되어 있지만은 이에 對한 歷史的 諸事實이 充分히 究明되고 있지는 못하다. 『루씨』 卽 『露西亞』라는 名稱의 起源에 對해서 까지도 外國學者들 사이에 諸說이 紛紛하여 아무런 適確한 結論이 내려지지 못하고 있을 程度이다.

이와 같이 露西亞民族의 起源에 關해서 諸說이 紛紛하고 그들의 原初史가 曖昧朦朧한 狀態에 머물러 있는 理由는 確實한 典拠文獻이 欠如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露西亞民族乃至 國家의 起源에 關한 最初의 文獻으로서 『原初年代記』란 것이 있다. 이 歷史書籍은 키예프의 케체르스키修道院 한 僧侶 「베스토르」(1056 - 1114)의 著述인 것으로 傳해져 있다. 그러나 現代學者들의 研究에 依하면 이 文獻은 特定한 어느 個人의 著述이 아니라 몇 世代에 걸쳐 集成 編述되어 12世紀初에 現在와 같은 形態로 나타났던 것이라고 한다.

『原初年代記』에 依하면 露西亞 國家는 露西亞의 여러 슬라브 宗族들이 收拾할 수 없는 큰 混亂에 빠져있던 西紀 862年頃에 세워지기 始作하였다고 한다. 그들의 힘으로서는 平和를 確立하고 正義를 具現할 수 없음을 깨달은 露西亞人들은 『루씨·와락』族의 首領에게 使者를 보내어 「우리들의 土地는 廣大하고 豐沃하지마는

그러나 거기에는 秩序가 없다. 오시어 君臨하고 우리들을 統治하
실지어다』라고 懇請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서 『와락』人이라
함은 北方에서 살고 있는 스칸디나비아系의 한 種族을 가리키는
것임이 暗示되어 있다. 이리해서 -『原始年代記』에 依하면 - 三兄
弟 卽 『와락』族의 首領인 류리크와 그의 두 同生은 卽時로 이
에 呼応하여 여러 親戚과 많은 部下들을 거느리고 슬라브人들의
땅으로 가서 長兄인 류리크는 노브고로드에서 權座에 오르고 仲兄
인 씨베우스는 벨로오제로湖 地域에서 末弟인 트르보르는 프스코프
附近인 이즈볼스크에서 執權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前述과 같은 說明은 大端히 曖昧하고 模糊한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原始年代記』가 露西亞史에 關한 主要한 典拠資料로서
많은 學者들에 依하여 尊重되고 있음은 事實이다.

슬라브人들의 起源과 그들의 古代居住地域에 對해서는 많은 學說
이 存在한다. 19世紀의 著名한 露西亞史家인 S.M. 솔로옌프
(1820 - 1879)와 V.O. 클류체프스키(1841 - 1911)는 『原初
年代記』의 影響을 많이 받은 學者들이다. 클류체프스키에 依하면
다뉴-브江沿岸地方이 슬라브人들의 原初的 居住地이었는데 그들은
그後 카르파티아 山麓地帶로 移住를 하였으며 이 무렵인 6世紀로
부터 그들의 記錄된 歷史는 始作을 한다고 한다. 솔로옌프에 依
하면 드네프로江 流域을 中心으로 荒涼한 環境속에서 散在하여 살
고 있던 未開한 狀態의 슬라브人들과 핀人들은 北方스칸디나비아로
부터의 와락人들 卽 노르만人들이 進入해 움을 契機로 하여 비로

소 國家的 体制의 端初를 열고 經濟的 關係의 基礎를 쌓게 되고 이 時代로부터 東部 슬라브 卽 露西亞 슬라브의 社會史 經濟史乃至는 政治史가 비롯하게 되었다고 한다. 露西亞의 著名한 歷史家이고 言語學者인 A. A. 샤흐마토프 (1864 - 1920)는 위와는 다른 學說을 主張하였는데 그에 依하면 슬라브인들의 原住地는 발틱 海岸과 西部 드비나江 및 니이먼江 流域이었는데 여기서부터 그들은 -2 - 3世紀頃에 고트인들이 移出한 뒤를 이어서-비스툴러江 流域으로 移住를 하였다고 한다. 그가 또 主張하는 바에 依하면 4世紀頃 고트인들이 현(匈奴)인들에 依하여 黑海沿岸인 스테프에서 逐出됨과 同時에 슬라브인들은 發生한 眞空을 메꾸기 爲하여 南쪽으로 내려갔다고 한다. 그리고 구스타프-코비나를 包含하는 著名한 獨逸學者들의 一致된 見解는 大略 이러한 것이었다.- 卽 原始유럽인들(아리안인들)의 原住地는 北部 獨逸 유틀란트半島 및 東部 스칸디나비아이었는데 이 中心地域으로부터 그들은 移出을 하여 全유럽과 그리고 印度를 包含하는 廣汎한 匪細亞地域으로는 흐터졌으며 그곳 그곳에서 非아리안系인 土着住民들과 混合함으로써 그들은 슬라브인을 包含하는 많은 갈래의 印度-유럽인들을 發生 成立시켰다는 것이다.

近年에 蘇聯學者들은 廣汎한 考古學的 調查 및 研究에 依拠하여 슬라브인들의 起源에 關한 새로운 學說을 내놓고 있다. 그들의 意見에 依하면 슬라브인들은 이 地方으로 移住해 온 것이 아니라 적어도 紀元前 約 3千年頃에는 그들의 祖先은 이미 中部 및

東部 유럽의 土着的 住民이었다고 한다. 고트人들이나 스칸디나비아人들은 모두 露西亞人들에게 文明을 가져다 주지 못하였으며 도리어 反對로 그들은 露西亞人들로부터 高度의 文明을 받아 들여 이를 消化하였다는 것이 그들의 主張인 것이다.

蘇聯의 考古學的 研究의 結果로 드네프르江 沿岸地帶 카르파티아 山脈과 돈江사이의 地域에 있어서의 社會發展은 -스키프人時代로부터 9世紀에 있어서의 키예프 國家의 建立에 이르기까지 -連綿히 繼續되어 왔었다는 것이 闡明되었다고 한다. 東部 露西亞에 있어서의 考古學的 發掘은 스키프人들의 領土가 다뉴브江과 돈江 사이에 놓여 있었고 또 거기서부터 內陸인 森林地帶에 까지 뻗어 있었음을 밝혀 주었다고 한다. 스키프人들은 돈江 入口와 大體로 現在 세바스토폴에 該當하는 地點과 現在의 케르치市와 타만半島等等에 많은 居住地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들 居住地의 住民들은 希臘文化를 그렇듯 徹底히 吸收同化하고 있었으며 그러므로 그들은 希臘的 스키프人으로 불려지기도 하였다고 한다.

考古學的 研究가 스키프人時代와 東部 슬라브人들 사이의 直接的 關係를 確證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不拘하고 學者들은 슬라브人들이 發生學的으로 스키프人들과 連結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으며 스키프人들이 슬라브人들에게 미친 影響이 어떠한 것이었는가에 對한 具體的 證據가 存在하기도 한다. 例컨대 드네프르江邊에서 스키프人 農夫들이 무덤이 發見되었는데 이 무덤들은 슬라브人들의 그것 보다도 1000年이나 더 오래되었음에도 不拘하고

이들 兩者가 相互間 近似性을 가지고 있음은 스킷人的 影響力의 執拗함을 証示하는 事實이 아닐수 없는 것이다.

通念的 意味에 있어서의 슬라브人들 卽 露西亞 슬라브人들은 露西亞의 南部 平原을 占居하고 있던 이들 初期 諸種族들의 後孫들이었거나 그들은 이 地方의 基本的 種族으로서 잇따라 來襲하는 侵略者들에게 征服을 當하였거나 또는 그렇지 않고 그들은 이미 野蠻的 種族에게 掠奪 破壞를 當한 荒廢한 땅으로 移住하여 왔거나 하는 問題等은 依然히 論爭의 對象일 수가 있다. 슬라브人들의 起源에 關한 各種의 學說은 어떻든 間에 슬라브 文明이 오랫동안 假定되고 있었던것 처럼 9世紀 乃至 10世紀로부터 비롯하지는 않았었고 그 始發이 훨씬 더 일렀었다는 것은 明白하다. 現代의 考古學的 研究는 自主性을 갖는 東部 슬라브的 乃至 前슬라브的 文明이 7-8世紀에 드네프르 地方에서 꽃피었다는 事實을 確証하여 주었다. 싸르스코예·고로디쉬체(로스토프의 前身)에서는 要塞化 되었던 都市가 發掘되었는데 거기서는 紡績工 木工 製華工 寶石工 陶器工 鐵物工 鑄物工等等이 힘을 다하여 일하고 있었다는 痕跡이 歷然하였다고 한다. 이리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歷史家들을 唐慌케 하여 왔던 키예프·루씨의 高度로 發展한 文明이 하루 아침에 產出된 것이 아니라 過去 여러 世紀에 걸쳐 築成되었던 物質的 精神的 土壤 위에서 비로소 꽃필 수 있었던 것이라 함을 손쉽게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9世紀에 進入하여 온 노르만人들은 繁榮하는 都市들에 魅惑되어 드네프르地方을 그들의 定住地로

扱하였으리라고도 推察된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들은 定住地를 開拓하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았었다는 事實로 미루어서 우리는 이러한 推察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슬랜드의 武勇傳説은 노르만인들의 定住以前에 露西亞에는 이러한 富裕하고 組織된 要塞都市들이 存在하였다는 學說을 支持하여 云다고 한다. 그러나 遺憾스럽게도 노르만인들이 來住하기 以前의 歷史에 關한 記錄된 露西亞文獻은 殆見되지 않고 있다. 『原初年代記』가 傳説에 依拠하는 것이고 자못 不完全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 『年代記』가 露西亞歷史의 起源에 關한 主要한 才一次的 典拠文獻으로서 오늘날까지 널리 活用되고 있는 所以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東部슬라브人들 卽 露西亞슬라브人들의 起源에 關한 우리의 敘述은 여기서 一旦 끝을 맺으려고 하지만은 우리의 敘述의 이 部分은 다음 章에 있어서의 슬라브人들의 國家建立 및 植民地進出에 關한 論述에 依하여 이어질 것이다.

나. 多民族의 複合

歐-亞 兩大陸에 걸친 廣大한 領土를 占有하는 露西亞는 數 많은 民族 乃至 種族을 網羅하고 있는 文字 그대로의 多民族國家이다. 露西亞國民의 主軸을 이루는 것은 大露西亞人 우크라이나人 및 白露西亞人이라고 하는 三大슬라브人 分派이며 이들 슬라브人 特히 大露西亞人의 血管에는 핀(芬)人들 스칸디나人들 乃至는 韃靼人들의 피가 적지 않게 混合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露西亞

即 오늘의 蘇聯에는 -帝政時代에도 마찬가지로 었지 마는 -約 150의 相異한 言語集團이 살고 있어서 突然히 하나의 人種誌學的 바벨塔을 이루고 있다.

유럽과 亞細亞의 여러 民族이 유라이서 (歐亞) 平原에서 서로 遭遇하여 人種的 混合을 이룩하였으며 이와 同時에 이들 諸民族은 複雜한 歷史的 過程을 거쳐 文化的 經濟的인 共通的 紐帶에 依하여 統合됨으로써 하나의 雄大한 民族複合體를 形成함에 이른 것이다. 1941年 獨, 蘇戰이 勃發하기 直前 蘇聯人口는 193,000,000이며 그중의 約 75%는 슬라브系라는 것이 發表된바 있었다.

이와 같은 多民族國家로서의, 露西亞가 갖는 複雜하고 微妙한 民族關係가 同國의 精神的 文化的 및 政治的 社会的 發展에 相當한 影響을 미치어 왔을 것은 勿論이지마는 이와 關聯하여 우리의 注意를 끌지 않을수 없는 事實中的 하나는 露西亞人들은 -帝政時代 이전 오늘의 蘇聯時代이전 間에 -一般的으로 人種的 民族的 差別觀念이 極히 稀薄하거나 또는 거의 없다는 點이다.

다. 國民的 性格

自然的 環境과 特異한 歷史的 事件들을 骨子로 하는 民族的 發展의 過程이 그 民族-國民의 性格形成에 影響을 미친다는 主張乃至 學說을 充分한 理由를 갖는다.

露西亞의 歷史는 美國의 境遇와 마찬가지로 -現世紀에 이르기까지 - 끊임없는 膨脹의 歷史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領土的 擴張의

過程이 物心兩面的 意味에서 國家와 民族의 發展에 影響을 미치지 않을수 없음은 勿論이다. 不斷히 境界線을 擴張하면서 넓은 水平線을 探索하고 있는 사람들은 해묵은 傳統이나 낡은 因襲에 束縛 당하지 않고 도리어 이들을 無視 乃至 打破하려고 한다. 그들은 歷史的 遺物이나 낡은 文化財에 강한 關心을 돌릴 餘裕가 없다. 그들은 不斷히 變化하고 擴大되는 世界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接近할 수 있는 땅을 모두 占有하여 버리거나 또는 有力한 抵抗에 부딪쳐서 膨脹이 停止됨에 이르면 辺境開拓的 社会(『프런트·쏘사이에티』)는 安定期로 移行하고 그들의 文化와 國民的 性格은 漸次로 洗練度를 加하게끔 된다. 오늘의 美國은 勿論이러니와 오늘의 蘇聯도 그들의 國民 文化發展의 새로운 段階로 移行하지 않을수 없으면서도 或은 徐徐히 移行하면서 있으리라는 것은 녀넉히 推察될 수 있는 일이다.

自然的 環境이 國民의 政治的 制度와 心理的 特性과 乃至는 情緒的 資質에 미치는 影響 如何의 問題는 18世紀의 仏蘭西 эн사 이클로페디스트들에 依하여 提起되었고 그 以後 이 問題는 끊임없이 討議되어 온바이기는 하지만 아직껏 科學的 研究의 成果가 이를 充分히 解明하여 주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는 自然的 環境이 國民的-民族的 性格形成에 어느 程度 作用을 하고 있다는것 그리고 露西亞인들이 살고 있는 廣漠한 大平原이 그들에게 적지 않은 影響을 미치어 왔으리라는 것을 無理없이 想定할 수가 있다. N.베르다프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 『限界를 모르는 露西亞의 廣大性은 露西亞人의 精神에 反映되어 있다. 露西亞 精神의 風景은 露西亞의 自然的 風景에 相應한다고 하겠는바 無限한 彼岸으로 뻗은 그 無涯性과 그 無形性에 있어서 兩者는 서로 同一한 것이다.』 어떠한 外交와 戰略과 民族的 偏狹性도 이를 拒否超克할 수 있는 우리서 平原의 저 廣大性은 露西亞人들의 所謂 『広濶한 天性』(『쉬로오카야·나투우라』)의 形成에 影響을 미치었을 수 있으며 이리해서 그들의 偉大한 共通 言語와 大祖國思想은 產出되었을 수가 있다. 그리고 景致는 美麗하지만 땅은 狹少한 그러한 山間地域에서 살고 있는 露西亞人들의 文明이 廣漠無際한 大平原에서 不斷한 侵入者들을 맞이하여 生死를 賭한 鬪爭을 되풀이 하면서 살아온 露西亞人들의 그것과 同一할 수가 없음은 勿論일 것이다.

W. P. 웰브는 大平原에 關한 그의 著書에서 『大平原은 사람에게 崇高함과 廣漠함과 浪漫과 畏敬과 그리고 자주 견딜수 없는 孤獨感을 賦與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大海와 같이 渺茫無涯하고 色光이 單調로운 大平原은 露西亞人들이 一抹의 憂鬱性과 아울러 冒險的 大膽性을 키우는데 이바지 하였을 수가 있다.

露西亞의 酷烈한 氣候로 말미암아서 露西亞人들이 健壯한 體軀를 갖게 되었으리라고 하는 解釋은 當然하다고 할 수가 있다. 이 나라의 農作期間은 짧으며 農繁期의 日數는 極히 制限되어 있기 때문에 이 期間에 農民들은 全力을 기울여 集中的으로 일하여야 하며 特히 秋收期 같은 때에는 文字 그대로 粉骨碎身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農閑期라고 하는 冬節에 있어서도 露西亞 農民들은 -美國農民의 境遇도 마찬가지로 하겠지만 -各種 各색의 活業을 많이 갖고 있다. 建物 農具 및 馬具等を 修理한다던가 燃料用 樹木을 베어서 끌어내려 貯藏한다던가 等等 해야할 일은 수두룩 하다. 그리고 日常生活品이나 營農機具와 附屬品等은 河川이 얼어 붙고 道路가 눈으로 굳어져 있을 期間에 運搬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리고 寒天 밑에서 해야만 하는 이러한 戶外作業들은 露西亞人들의 體軀를 - 다른 나라들에서는 類例를 찾을수 없을 程度로 -頑健하게 만들어 준다.

天災와 戰爭等の 많은 災厄을 體驗함으로써 露西亞人들은 無限한 忍耐力을 키울수가 있었다고 한다. 才二次世界大戰 終戰期の 美國 務長官이었던 J. 번언즈는 當時의 蘇聯外相이었던 V. 몰로토프가 協商過程에서 『相對方이 焦燥해서 어쩔줄을 몰라하거나 不快해 하는 氣色이 보이기만 하면 도리어 이를 즐거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다고 말한바가 있다. 여러 世紀에 걸친 鬪爭을 通해 서 露西亞人들은 焦燥해서 서두르거나 突然한 幸運을 期待한다는 것은 좋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 함을 배우게 된것으로 解釋된다. 露西亞語에는 英語의 『에피센씨』와 完全히 뜻을 같이 하는 單語는 存在하지 않으며 華命後의 新語로서도 이와 同意的인 單語가 아직껏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

氣候라는 自然的 條件 嚴冬이라는 暴君은 -따라 다니는 『運命』

과도 같이 - 메어 버릴 수도 쫓아 버릴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露西亞人들은 그렇듯 嚴酷한 天候의 德沢으로써 놀랄만한 忍耐力
과 強靱성과 堅忍不拔性を 키울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와 同時に
그들은 그들 自身の 苦痛에 對해서 無感覺하며 다른 사람들의 苦
痛에 對해서도 또한 無神經하다는 批判을 받는다. 그리고 그들이
殘忍하다고 하는 非難은 여기에서 由來한다. 露西亞인들이 苦痛에
對해서 冷淡할 수 있다는 것은 事實이다. 人生의 온갖 苦難을
어느 程度 縮念적으로 받아 들이는 그들은 죽음까지도 놀랄만큼
泰然自苦한 態度로 맞이 할 수가 있다. 露西亞인들의 이러한
『無感覺性』은 - 平和時나 戰時를 莫論하고 - 많은 觀察者들의 目擊하
여온 바이다.

그러나 露西亞인들의 性格에 미치는 自然的 環境의 影響은 過大
評價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우리는 留意하지 않으면 안된다.
露西亞인들의 國民的 性格 形成에는 自然的 環境以外에도 다른
여러가지 要因이 作用을 하였을 것이다. 露西亞들이 그렇듯이
大膽하게 大會的 政治的 實驗에 뛰어 들수 있는 理由는 그들이
歷史的 記念物에 對한 愛着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던가 그렇
지 않으면 그들에게 이러한 記念物이 欠如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
라고 說明하는 學者들이 있다. 그들에 依하면 歷史的 記念物을
갖는 國民은 保守적으로 되어 그들의 過去 歷史에 얽매이게 되는
傾向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英國을 實例로 들기도 한다. 그
리고 先進的 文化國인 이 나라에서는 一步一步가 歷史 그것이며

每個의 政治的 社會的 現象은 傳統에 깊이 뿌리 박고 있다고 한다. 歷史的 記念物을 갖고 있는 프스코프 노브고로도 乃至는 모스크바와 같은 若干의 오랜 都市와 全國에 散在하여 있는 少數의 오랜 修道院을 除外하고는 露西亞는 美國의 中西部와도 같이 歷史的 記念物을 갖고 있지 못하다. 끊임없이 侵入하는 外敵들과의 激烈한 鬪爭의 마당이었던 이 나라에 數 많은 무덤들 以外에 어떠한 記念物들이 또 남겨질 수 있었겠는가! 如何든 壓迫的인 傳統의 束縛을 받지 않는 露西亞人들은 法이 적고 새로운 思想과 社會的 理論을 大膽하고도 徹底하게 實驗할 수가 있으며 『永遠한』 真理란 것을 큰 懷疑 없이 받아 드릴 수가 있는 것이다.

露西亞 農民大衆의 反抗性은 所謂 『露西亞精神』의 產物이 아니라 貴族=地主階級에 依한 農民의 收奪 經濟的 不公正과 政治的 差別 貧富의 隔差와 民衆의 生活苦等等으로 말미암은 大衆的 不平 不滿에 基因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苦痛을 當할때 政治的으로 過激하여 지고 그들의 苦痛이 살아질때 그들은 既成秩序를 贊成하게 된다』고 하는 見解는 一見 素朴하여 보이면서도 多分の 真理를 含蓄하는 것이다.

經濟的 不公正과 政治的 壓制에 對해서 露西亞의 民衆처럼 그렇게 많이 抗拒하여 싸웠다는 實例를 다른 나라들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다. 約 30年間 繼續된 니콜라이 一世의 統治下에서는 約 600回의 農民反亂이 일어났던 것으로 記錄되어 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反亂들은 極惡한 形態를 띠고 나타나서 世人을

크게 놀라게 하기도 하였다. 드물게 있었던 이러한 殘虐行爲는 公民的 教養과 訓練의 不足 群衆心理의 作用 大衆的 原始感情의 爆發等에 因由하는 것이었으리라고도 推察되는 바이지만은 如何든 露西亞民衆의 이와 같은 醜惡한 行爲의 밑바닥에는 언제나 抑壓된 精神을 解放시키려고 하는 努力과 그리고 社会的 正義를 實現하고 社会秩序를 改革하려고 하는 意志와 理念과 高尚한 動機가 潜在해 있었던 것이다.

露西亞人들의 性格的 特徵은 이미 言及한바와 같이 끈질긴 忍耐力과 同時에 強한 爆發力을 갖고 있다는 點에 있다고 한다. 그들은 不正과 壓制와 虐待를 西歐人들 보다도 훨씬더 잘 참아 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溫順히 壓制를 받아 들인다던가 『奴隸的 卑屈性을 가지고 췌쪽에 키스한다』는 것을 반드시 意味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堂堂한 戰鬪에 依해서가 아니라 忍耐力과 隱密한 計略에 依해서 끝내는 勝利를 獲得하는 陰性的인 叛徒에 比喩될 수가 있다. 그들은 言語와 思考에 있어서는 遲鈍하고 原則과 行動에 있어서는 頑強하지만은 때로는 周阡하고 狡猾한 術策을 부리기도 한다. 天來的인 『페이비언』으로 불려질 수도 있는 그들은 恣勢를 낮추고서 기다리다가 好機가 오면 敢然히 蹶起하여 敵陣을 強打할 수가 있는 것이다.

露西亞的 靜寂의 밑바닥에 남아있는 불씨는 때가 오면 俄然히 큰 불로 피어 오를 수가 있다. 1606-07년에 있어서의 블로트니코프의 叛亂 1670-71년에 있어서의 스테판·라닌의 叛亂

1773-75년에 있어서의 푸가초프의 叛亂等等은 이에 처한 例證이라고 할 것이다.

S.H. 크로쓰는 슬라브文明에 關한 그의 著書에서 元來 슬라브人들은 平和的인 國民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露西亞語에는 本來는 『헬멧』(鐵帽) 『쏘어드』(劍)等等과 같은 武士의 用語는 없었으며 이러한 말들은 고트人들을 通해서 비로소 들어 왔다고 한다. 露西亞人들은 戰爭을 犯罪視하지 마는 一旦挑戰을 받게 되면 그들은 가장 큰 狂暴性과 勇氣와 強靱性을 가지고서 勇戰敢鬪한다. 이때에 그들의 個人的 柔順性은 勝利를 目的하는 無慈悲한 集團的 意志로 突變하여 버리며 이러한 事實은 레닌·그라도 세바스토폴 乃至는 스탈린그라도等等에서 充分히 實証되었던 바이라는 것이다.

露西亞人들은 一種의 『메시아』(救世主)的 思想 乃至 希望을 갖고 있다는 것이 많은 研究家들에 依해서 指摘되고 있다. 그리고 도스토예프스키의 作品들에서 가장 잘 表現되어 있다고 하는 이 『메시아』的 思想은 要컨대 露西亞人들이 天賦的으로 갖고 있는 훌륭한 國民的 德性은 將次 全世界를 德化하고 全人類를 物質的 抑壓으로 부터 解放하여 모든 사람에게 靈的 精神的 安全을 保障하여 주리라는 希望이고 꿈이고 信念이다. 도스토예프스키는 聖스러운 靈의 世界를 志向하여 努力을 繼續한다는 것은 人類의 避할 수 없는 運命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露西亞人들은 『生活哲學』의 信奉者가 아닌 一種의 『絶對主義者』이다. 그들은 中道的 哲學을 嫌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思想을 一旦抱懷하게 되면 그들은 이를 誠心誠意로 信奉하고
끝까지 이를 窮行 實踐하려고 한다. 도스토예프스키의 主人公들
中的 1人인 무쉬킨公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露西亞人이 無政
府主義者로 된다는 것은 世界의 다른 누구의 境遇보다도 훨씬 더
容易하다. 그리고 露西亞人들은 單純히 無政府主義者로 되는데 그
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어김없이 無政府主義를 -그것이 마치 하
나의 새로운 宗教인樣 - 信奉하게 되는데 이 境遇에 그들은 自身이
一種의 非存在(니게이션)를 信仰하고 있다는 事實을 깨닫지 못하
는 것이다.』 그리고 베르다예프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다. -
『宗教的 에레르기의 電流를 非宗教的 對象에로 科學이나 社會生活
의 相對的 部分的 分野에로 轉換시킨다는 것은 特히 露西亞의 精
神의 屬性인 것이다.』

中道와 妥協과 便宜主義를 拒否 排擊하는 露西亞人들에게 있어서
는 妥協은 信念의 背叛 그들 自身의 否定을 意味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全部가 아니면 無』를 取扱하려고 하며 따라서 그들의
政治的 信念은 非妥協的인 宗教的 性格을 띠지 않을수 없는 것이
다.

위에서 우리는 露西亞人들의 國民的 性格의 特徵的인 諸部分을
大略 說明하였다. 露西亞人들의 國民的 性格은 -다른 여러 民族의
境遇와 마찬가지로 -長點과 短點을 아울러서 갖고 있음이 事實이다.
그리고 그들의 性格的 諸特徵에 對한 評價는 觀察者의 立場과 觀
點如何에 따라서 相當한 差異를 나타내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自然的 環境의 影響 밑에서 長久한 歷史的 過程을 通해서 形成된 露西亞人들의 國民的 性格은 짧은 時日內에 簡單 容易하게 變化하지는 않을 것이며 그 主要部分은 今後 相當히 長期間에 걸쳐 維持되고 어느 程度 變形도 되고 發展도 하면서 그들의 國家政策의 樹立과 實踐에 影響을 미치게 될것이다. 그렇기 때문에야말로 우리는 露西亞人들의 獨特한 國民的 性格을 科學的 理論的으로 研究 檢討하여 이를 올바로 理解 把握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以上에서 우리는 露西亞의 『國土』와 『國民』에 關하여 그의 自然的 環境과 國民的 性格에 關하여 어느 程度 冗長한 說明을 試圖하였는바 그 理由인즉 이려하다. 첫째로 露西亞人들의 自然的 環境은 그들의 國民的 性格形成에 影響을 미칠뿐 아니라 그들의 國家政策의 樹立과 實踐에 直接的인 影響을 미칠수 있는 客觀的 要因이고 둘째로 露西亞人들의 國民的 性格은 一方今 위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亦是 그들의 國家政策의 樹立과 發展과 實踐에 決定的 影響을 미칠수 있는 主觀的 要因이며 따라서 우리가 帝政 露西亞의 東漸政策 및 對極東政策과 그의 後身인 蘇聯의 對中共 및 對韓半島政策을 올바로 理解 把握하여 主體的 能動的으로 이에 適應對處할 수 있기 위하여는 露西亞人들의 自然的 環境과 그들의 國民的 性格에 對한 充分한 研究와 正確한 把握이 必要不可 欠할 터이기 때문인 것이다.

第二章 東部슬라브人들의 露西平原占住와 國家建立

가. 東部슬라브人(露西亞人)들의 移住的 植民的 性向

露西亞의 『原始年代記』는 古代의 汎슬라브人이 亞細亞로부터의 移來民이었다는것 「슬로벤」이라고 불려지는 歐羅巴에서의 最初의 占住地가 沿다뉴브 地方이었다는것 그들은 「블로흐」人等 侵入者들의 壓迫을 받았으며 分派的으로 移動하여 各各其 名稱을 달리 함에 이르렀다는것 등을 傳하고 있지만 이들 諸事實에 關한 年代는 明確하게 表示되어 있지 못한다. 如何든 이 年代記에 依하면 「블로흐」人의 壓迫에 못견디어서 沿다뉴브 地方에 있던 古代슬라브人의 一部는 비스툴러江畔으로 옮겨가서 「랴흐」라고 불려지고 다른 一部는 드네프로江地方으로 移住해서 「폴라닌」이라고 呼稱되고 또 다른 一部는 森林地帶로 移入해서 「드레블라닌」이라고 일컬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關聯된 歷史的 文獻에 依拠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沿다뉴브地方으로부터의 分派的 移動을 繼續하여 카르파트地方에 占住하고 있던 所謂 카르파트·슬라브人들은 三世紀以來 勇敢한 고트人들의 侵略을 받게 되었으며 그들中的 가장 有力한 分派는 새로운 生活環境을 求得하기 爲하여 東北쪽 또는 東쪽으로 移動 드네스트르江과 드네프르江에 結된 地域에 占住하게 되고 乃至는 黑海北岸地帶에 까지 散在하게 되었던 것으로 推察된다. 이와 同時 또는 이에 뒤이어서 西北方 비스툴러江쪽으로 移動하여

간 다른 分派인 『西部 슬라브』는 새로운 地方에 있어서의 地理的 條件의 制約을 받아 地域적으로 分散적인 占居形態를 取하게 되어 오늘날의 中·東歐에 걸친 슬라브系 諸民族의 基礎를 形成하게 되었던 것이다.

카르파티아로부터 드네프르江의 方向 即 東露의 方向으로의 東슬라브의 移動은 六世紀末과 七世紀를 通하여 強化되었다고 한다. 古代汎슬라브 民衆의 沿다뉴브地方에서 카르파트地方으로의 分派的 移動을 露西亞 原初史에 있어서의 才一次의 移住라고 한다면 카르파트 北斜面 地方에서 東露平原으로의 移動은 이를 才二次 移住라고 부를수가 있다. 그리고 沿다뉴브地方에서 東北方으로 世代的인 移動 乃至 移住를 한 古代슬라브人들의 立場에서 볼때 카르파트地方은 中間的 滯留地點인 同時에 그 滯留期間은 한 時代를 劃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일컬어서 카르파트時代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R. B. 디슨은 原始的 移住의 一般的 原因으로서 天災地變 氣候 激變等과 같은 自然災害의 原因과 集團의 驅逐 侵入群과의 鬪爭에 있어서 敗退 經濟上의 새로운 機會를 얻으려고 하거나 또는 새로운 地方을 征服하려고 하는 慾求等의 社會的 經濟的인 原因과의 兩者를 들고 있다. 그리고 그의 見解에 依하면 이러한 原因은 그 程度 및 樣相의 差異는 있을지언정 原始時代 以後 現代의 植民運動에 있어서도 한결 같이 認定되는 바이라고 한다. 그러나 古代슬라브人들의 移動 乃至 移住運動에 있어서는 여러 原因中 特히

다뉴브時代에 있어서의 볼흐族의 侵入 카르파트時代에 있어서의 고트族의 來襲 그리고 그後에 있어서의 아바르族의 侵攻等에 依한 影響이 가장 컸을 것으로 推察된다. 그 原因은 반드시 單純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如何든 위와 같은 여러 原因들에 依해서 東部슬라브 即 露西亞슬라브人들이 沿다뉴브時代로 부터 카르파트時代를 거쳐 南部 露西亞로 移動 乃至 移住를 繼續하는 동안에 그들은 이와 같은 移住活動의 長久한 歷史的 過程을 통해서 그들의 移住的 植民的 性格을 培養하고 또 이를 偏向的으로 強化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는 事實을 우리는 重視하고 強調하고 싶은 것이다.

移住 및 植民은 온갖 時代를 통해서 모든 民族의 經濟史上에 있어서뿐 아니라 文化史上 政治史上에 있어서도 極히 重要的 役割을 하여 왔음이 事實이다. 『露西亞史教程』의 著者인 V.O. 클류체프스키 - 教授의 見解에 依하면 要컨대 移住 - 植民은 露西亞 歷史의 基礎的 事實이며 이 基礎的 事實과의 直接的 乃至 間接的 關聯下에서 露西亞史上의 다른 많은 事實들이 存在한다는 것이다.

카르파트北部斜面 地帶를 떠나서 露西亞平原으로 들어간 東部슬라브의 民衆은 七世紀末期頃까지에는 드네프르江 中部流域一帶와 地方을 露西亞平原에 있어서의 最初의 基本的 集團占住地로 삼았으며 이윽고 그들은 露西亞슬라브民族으로서의 生成을 보겠끔 되었다.

그러나 그 以後에 있어서도 露西亞人들의 民族的 植民的 活動은 繼續되었고 이러한 活動과 그 成果를 通하여 그들의 移住的 植民的

性格은 具體的으로 顯現되었으며 他面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活動과 成果를 通하여 그들의 植民的 民族的 性格은 一層더 助長 強化되었다. 이리해서 露西亞슬라브人들은 이와 같이 植民的 活動의 繼統的 展開를 通하여 廣大한 露西亞平原을 그들의 生活領 域으로 만들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윽고 그들의 植民的 活動의 方向은 廣漠한 西伯利亞와 東北太平洋으로 돌려지게 되었던 것이다.

나. 슬라브人들과 異種人들

露西亞슬라브人들이 露西亞平原에서의 移住的 乃至 植民的 活動을 通하여 만났던 異種人들 中の 主要한 것은 하자르人 핀人 및 바락人이었다. 슬라브人들은 이들 異邦人들과 接觸 乃至 交流를 하면서 植民的 發展을 이룩하였는데 그것은 同時에 民族生活의 内部的 充實과 外部的 擴張을 意味하는 것이었다. 이리해서 그들은 露西亞平原을 植民的으로 開發하여 經濟的 力量을 蓄積하였으며 이리함으로써 그들은 外部地域 特히 廣大한 西伯利亞平原에로의 植民的 進出을 爲한 基礎的 實力을 涵養할 수가 있었다.

東歐에 있어서의 諸河川 個中에도 드네프르江의 本支流는 露西亞슬라브人의 經濟的 生活에 많은 貢獻을 하였다. 이들 諸河川은 森林地帶에 있어서의 그들의 占住地域과 黑海沿岸 카스피海沿岸方面에 있는 市場을 連結하는 通路로서의 구실을 하였으며 이와 같은 水路를 통한 商業的 活動은 占住地域의 產業的 發達을

또한 促進하였다. 露西亞슬라브인들이 占住하고 있던 地方의 森林 들에는 狩獵 또는 採取에 依한 産物이 豊富하였으며 毛皮 蜂蜜 蜜臘等은 드네프르江 불가江等の 商業 通路에 依한 主要한 交易物 資로 되었고 따라서 그들의 森林經濟生活은 이로서 維持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物資의 交易이 有利하게 또 円滑히 行해질 수 있었던 것은 다만 自然的 諸條件이 有利하였기 때문만 은 아니었으며 商業上의 仲介者 保護者의 役割을 担当하고 있던 하자르인들의 活動이 컸었기 때문이었다. 東部슬라브인들이 露西亞 平原에 移住하여 왔을 무렵에는 匪細亞 方向에서 들어온 하자르인 들은 이미 돈江 불가江下流域 地方을 거쳐 드네프르江 方面으로 進出하였으며 七世紀頃에는 그들은 黑海의 北岸에서 스테프에 걸친 넓은 地域을 占拠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해서 露西亞슬라브인과 하자르인은 漸次로 接近하고 接觸하고 交流를 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土耳其系의 遊牧的 種族인 하자르인들은 스테프地方에 占住하게 되자 掠奪的 行動을 中止하였으며 그들은 유럽인들의 影響을 받아 文化的으로도 發展하게 되었다. 그들은 農耕과 漁撈와 商業에 從事 하고 冬節에는 주로 都市에 集中하여 살았으며 夏節에는 分散하여 牧地와 農園으로 갔다. 하자르의 占拠地域은 바로 유럽에서 匪細亞로 가는 商業通路에 位置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자르의 諸都市에 서는 歐亞의 商人들에 依하여 交易이 行해지는 同時에 回教徒 猶太教徒 基督教徒等이 서로 接觸하고 交流할 수가 있었다. 하자르

汗의 宮廷은 모두 猶太教를 信奉하고 住民의 大多數는 回回教에 歸依하고 있었지만 基督教徒 및 其他의 異教徒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狀態下에서는 自然히 信仰의 自由가 生成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러므로 해서 이 地方으로 移住해 오는 사람들은 더욱 增加하는 趨勢를 보였다.

先住民인 하자르人들은 露西亞슬라브人들에 對하여 支配的 位置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클류체프스키-教授의 見解에 依하면 그 무렵에 있어서의 하자르人들의 支配는 드네프르江流域의 露西亞슬라브人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重圧은 아니었으며 도리어 後者は 前者로 말미암아서 經濟的 利益을 얻고 있었다는 것이다.

八世紀 乃至 十世紀에 있어서의 하자르人과 露西亞슬라브人과의 關係는 반드시 一定하지는 않았다. 이 時代의 初期에 스테프에 近接한 地方에 살고 있던 露西亞슬라브人들은 하자르權力者 層의 直接的 支配下에 있었지만 이와 같은 從屬 關係는 漸次로 弱화되었다. 더우기 十世紀에 있어서는 하자르人은 異種의 遊牧民인 페체베그人과의 鬪爭으로 말미암아 漸次로 衰微하여 갔음에 反하여 露西亞슬라브人은 도리어 優勢하여져서 마침내 하자르人의 支配는 完全히 排除됨에 이르렀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異種人들과의 接觸 乃至 交流에 依해서 助長된 商業的 活動은 商業都市들의 勃興을 促進하였다. 露西亞슬라브人들의 移住的 植民的 活動에 隨伴하는 이러한 商業的 活動 乃至는 東方諸國과의 交易이 하자르人 아랍人들의 協力에 依하여 行

하여 졌으며 都市의 發達이 이와 같은 商業的 發展을 통하여 促進되었음이 事實이라고 할진대 위와 같은 異種人들과의 關係가 露西亞슬라브人들의 經濟的 力量培養과 그들의 植民的 活動展開 - 西伯利亞 平原에로의 植民的 進出을 爲한 準備 過程에서 重大한 意義를 갖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留意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露西亞슬라브人들은 露西亞 平原에서의 北方 乃至 東北方에로의 進出 오카와 上部 볼가의 兩江流域에로의 進出過程에서 핀人들과 遭遇하였다. 핀人들은 露西亞슬라브人들이 露西亞 平原에 來往하였을 때에는 이미 中部 및 北部의 森林 또는 沼澤地帶들 사이에서 많은 小集團을 이루고 分散占住하고 있었다. 鞏固한 内部的 組織力도 異種族群에 對抗할만한 武力도 없었던 그들은 將來者인 露西亞슬라브人들에 對하여 아무런 積極的 抵抗을 하지 않고 自己들의 土地를 내어 주고서 一層 더 깊은 北쪽 또는 東쪽으로 遁入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露西亞슬라브人들과의 接觸 또는 交流를 통하여 漸次로 이들과의 融合을 이룩할 수 밖에 없었다. 이리해서 露西亞슬라브人들은 先住者인 이들 핀人과 接觸 乃至 交流를 繼續하였으며 이러한 接觸과 交流의 過程을 통해서 이들 兩者 사이에는 民族的 複合化가 促進되고 핀人은 大露西亞人 形成의 主要한 一要素로 되었던 것이다.

다. 바라그公國들의 出現

自主的 内部構造를 갖는 都市의 發生이 歐露의 植民的 發展

初期에 있어서의 地方的 政治組織의 萌芽이었다고 한다면 中心的 都市의 經濟的 社會的 乃至 政治的 勢力이 미치는 範域 即 都市 地方은 同時代에 있어서의 植民的 集團生活의 地域的 單位이었던 것으로 보아진다. 그리고 都市地方을 基盤으로 하는 政治的 支配 權力의 伸長을 따라서 여러 곳에서 公侯들 即 群小君主들이 出現을 보았다는 것은 植民的 集團生活의 封建的 前進을 意味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前進過程에 있어서의 露西亞人들과 異種人들과의 接觸 乃至 交流는 여러가지 結果를 招來하였는바 特히 바라그公侯들의 出現 따라서 바라그公侯國들의 勃興은 露西亞人들의 政治生活上에 있어서의 注目할만한 事實이 아닐수 없는 것이다.

元來 스칸디나비아·노르만의 渡來者들은 露西亞平原에 있어서의 生産的 中心地域에 群集하고 있었는데 이윽고 그들은 自由商業者로서의 또는 都市의 防衛와 交易通路의 警備等を 任務로 하는 被雇傭者로서의 從屬的 地位를 벗어나 漸次로 支配的 地位를 獲得함에 이르렀다. 都市에서의 戰士階層으로 成長한 武装渡來者들 사이에는 指導者가 나타나 그중의 어떤 者는 支配的 勢力을 갖게끔 되었는데 이들을 指稱하는 스칸디나비아 名詞는 『코닝』 또는 『비킹』 이고 露西亞의 그것은 『크냐아지』(公侯) 또는 『비타아지』(武士)이었다.

바라그의 『코닝』은 地方的 中心地域 特히 都市의 權力을 掌握하고 周圍의 住民을 支配하고 租稅를 徵收하였으며 그 地方住民들

은 生活上의 安全을 爲하여 權力的인 『코닝』에게 服從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라그 出身의 首領 卽 公侯에게 奉仕하고 그의 支配的 地位를 擁護한 것은 『드루지이나』(druzhina) 卽 將兵이라고도 불려질 수 있는 바라그人系의 住民集團이었다. 이와 같이 支配的 權力을 掌握하고 있었던 것은 『코닝』을 中心으로 하는 바라그人들의 勢力이었으며 이들 바라그人들은 그들의 出身地인 스칸디나비아의 連結을 緊密히 함으로써 그들 自身の 優越的 地位를 維持하려고 힘썼다고 한다.

그러나 他面에 있어서는 바라그人들의 슬라브化가 急速히 進行하고 있었으며 스칸디나비아 出身으로서의 그들의 노르만的 特徵은 漸次로 潛設하고 生活上의 特殊的 現象은 漸次로 消失되고 所謂 植民的 社會에 있어서의 複合化 傾向이 顯現함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와 같이 바라그人側이 슬라브化하지 않을 수 없었던 主要한 理由로서는 露西亞슬라브人이 數量的으로 바라그人을 圧倒하고 있었다는 點 이들 슬라브人은 文化的으로도 바라그人에게 뒤지고 있지 않았다는 點等を 들 수가 있을 것이다.

바라그 戰士階級을 基盤으로 하여 首領들이 스스로의 權力的 地位를 強化하고 바라그 公侯로서 出現하게 되자 内部的으로는 그들 相互間의 支配領域爭奪戰이 外部的으로는 近隣地方에로의 武力的 進出이 잇따라 일어났다. 그리고 對內的으로 權力을 增大하고 對外的으로 勢力을 擴張한 優勢한 바라그諸侯는 劣勢한 바라그諸侯를 威壓하게 되고 이리해서 마침내 強大한 大公國은 出現을 하게 되

있던 것이다.

『原初年代記』가 862년에 北方으로 부터 『루우키』의 支配者로서 迎入되었었다고 記錄하고 있는 류리크가 他界한 後 그의 一族 中の 有力者인 올렉그는 바라그 出身으로서 류리크의 部下이었던 아스콜드 및 디르를 代替하여 키예프地方을 支配하고 近隣의 公侯 即 諸侯들에게 權力을 미치었으며 『原初年代記』에 依하면 그는 西歷 907年 希臘에 遠征하여 貢納을 命하고 條約을 締結하였다고 한다. 올렉그의 後繼者이고 류리크의 아들인 이고오리·류리코비치는 内部的 統一을 圖謀함과 同時에 外部的으로는 希臘遠征을 2回나 敢行하여 成果를 거두었다고 한다. 『原初年代記』에 依하면 이고오리의 아들 스바토슬라프·이고레비치는 西歷 964年 그의 嫡子 야로폴크·스바토슬라비치를 키예프로 올렉그·스바토슬라비치를 드레블라닌 地方으로 配置하고 그의 庶子 블라디미르·스바토슬라비치를 노브고로드地方으로 配定하였다고 하는바 이러한 經緯로서 미루어 보건대 當時에 있어서는 北露보다도 東露를 重視하는 말하자면 東露偏重的 傾向이 없지 않았던것 같이 생각되며 바라그들의 政治的 活動은 十世紀後半頃에는 東露方面과 北露方面으로 나누어져 相互抗爭的 關係에로 기울어져 가고 있었던 것으로 推察된다.

키예프의 야로폴크·스바토슬라비치는 드레블라닌地方에 侵入하여 그의 아우 올렉그·스바토슬라비치의 軍隊를 擊破하고 키예프를 中心으로 한 東露政權을 強化하는 한편 다시 北進을 하여 노브고로드를 또한 그의 支配下에 넣으려고 하였다. 일찌기 노브고로드에

配置되어 있던 그의 異服同生인 블라디미르·스바토슬라비치는 一旦 逃走를 하였다가 이윽고 바라그戰士等을 거느리고 逆襲을 敢行하여 西歷 980 年에 키예프를 占領하였는데 이는 바라그戰士들의 奮戰에 依한 것이었다. 一部の 戰士들은 키예프民衆으로부터 賠償金을 徵收하여 이를 分配하려고한 그들의 企圖가 失敗한 後 希臘侵攻을 計劃하여 分離하여 갔음으로 해서 블라디미르·스바토슬라비치는 忠實한 殘留者들에게 占領한 키예프地方의 土地를 分與하고 그 自身은 키예프를 中心으로 한 東露의 總括的 支配權을 掌握하였다.

바라그戰士階層의 協力에 依하여 9 - 10 世紀에는 바라그의 公國들이 잇따라 出現하였는데 例컨대 9 世紀後半의 노브고로드地方에 있어서의 류리크公國 벨로예·오제로(白湖)地方에 있어서의 시비우스公國 이즈보르스크 地方에 있어서의 트루보르公國 키예프地方에 있어서의 아스콜드公國 10 世紀의 폴록地方에 있어서의 로그볼로드公國等等이 그것이었다. 이와 같은 바라그公國들의 出現도 亦是 露西亞平原에 있어서의 植民的 活動의 複合的 性格을 証示하는 歷史的 事實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드네프르江 中部流域地方은 위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露西亞平原에 있어서의 東部슬라브人들의 最初의 集團的 占住地域인 同時에 그들의 民族的 根拠地이었다. 이리해서 露西亞슬라브人들은 東露에서 北露에로의 擴張的 植民活動을 展開하였다. 이러한 過程에서 異種人들과의 混合 異文化와의 交流現象이 일어나고 露西

슬라브인들 卽 露西亞民族의 植民的 複合化가 進行하였다. 그러나 露西亞슬라브인들의 植民的 進出過程에 있어서의 集團的 社會生活에 封建的 支配組織을 導入하고 그 發展을 促進시킨 것은 스칸디나비아 出身의 노르만 卽 바랴그인들이었던 것이다.

라. 蒙古政權의 崩壞와 모스크바大公國의 抬頭 (이반四世의 登場)

西歷 1235년에 開始되었던 蒙古軍의 西征으로 말미암아 歐露의 콜롬나 수즈달리 블라디미르 로스토프 야로슬라블리 페레야슬라블리 드미트로프 볼로크 트베리 랍스키-코젤스크 등이 모두 改略되고 노브고로드는 겨우 難을 免하였지마는 1240년에는 키예프까지도 占領됨으로써 所謂 『루우씨의 땅』은 거의 全城이 蒙古人들의 支配下에 놓이게 되었다. 蒙古인들이 所謂 中世大陸의 植民帝國을 歐亞에 걸쳐서 確立한 것은 13世紀 中葉이었는데 歐露一帶를 直接的으로 支配한 킵차크汗政權은 이로부터 거의 2世紀半동안 存続하였던 것이다.

V. V. 바르톨드는 그의 著書 『歐羅巴 및 露西亞에 있어서의 東洋研究史』에서 『蒙古軍의 攻擄에 依한 甚한 荒廢와 『바스카크』 (徵貢吏) 등에 依한 苛酷한 誅求에도 不拘하고 露西亞슬라브民族의 政治的 復興 및 文化的 發達의 基礎는 蒙古의 支配下에 있었던 時代에 쌓아졌다고 하는 見解를 밝히고 있다. 蒙古 킵차크汗 政權의 支配下에 있던 露西亞슬라브인들은 亞細亞로부터의 政治的 經濟的 및 文化的 影響을 不可避하게 받았을 뿐 아니라 킵차크汗 政

權이 宗教文化等에 對하여 寬容的 政策을 繼續하였음으로 해서 先進的인 西歐諸國으로 부터 받는 宗教的 文化的 影響도 또한 적지 않았다.

이와 같이 東西兩側으로부터 刺敎과 影響을 받는 露西亞슬라브人들의 社會的 文化的 生活에는 相當한 變化가 나타남과 同時에 蒙古人側의 政治的 壓制는 露西亞人들의 民族的 屈辱感을 刺敎함으로써 그들의 民族的 自覺과 反抗的 精神을 促進하는 結果를 낳았다.

그리고 한편에 있어서는 通商經路의 時代的 變遷으로 말미암아 東部『루우씨』에 있는 從來의 商業的 諸都市는 漸次로 衰微하였음에 反하여 東北『루우씨』地方은 漸次로 繁榮하여 14世紀初葉까지에는 모스크바 트베리 페레야슬라블리 - 라잔스키 - 니지니 - 노브고로드 등의 諸都市를 中心으로 여러 公國들이 勃興하였다. 이들 諸公國中에서 農業的 發展性이 있는 地方의 中心이었을 뿐더러 킵차크汗政權과도 有利한 關係에 있었던 모스크바는 작은 要塞都市에서 大都市로 發展하였다. 西曆 1330年 東北『루우씨』에 있어서의 指導的 地位인 모스크바大公位를 承認받은 이반 - 다닐로비치 (이반一世)는 킵차크政權下에서의 總徵稅官으로서의 地位를 利用하여 그 自身の 經濟的 政治的 實力을 培養하는 同時에 將次 모스크바政權이 獨立을 하기 爲한 基礎的 準備作業을 遂行하였다.

모스크바 大公位는 이반 - 다닐로비치에서 씨메온 - 이바노비치 이반 이바노비치 (이반二世)를 거쳐 더미트리 - 이바노비치 (더미트리 - 돈스코이)에게 繼承되었는데 그는 여러 公國들에 對한 指導的 地位를

強化하고 이들 諸公國의 統合機運을 促進하였다.

이와 同時에 킵차크政權의 權威와 勢力은 漸次로 弱화하고 露西亞슬라브人들에 對한 그의 統制力은 減退하여 갔다. 特히 1378年 蒙古軍이 라잔附近에서 露西亞軍에게 慘敗하고 뒤이어 1380年 頓江의 上流 流域에서 디미트리指揮下의 露西亞軍에게 敗退함을 契機로 하여 킵차크政權의 勢力은 急速히 失墜하였다. 이리해서 露西亞슬라브人들이 蒙古權力의 羈伴을 벗어나는 端緒는 열렸었지만 그들의 完全獨立은 이반·바실레비치(이반雷帝)의 治世인 1480年代에 이르러서야 實現될 수가 있었던 것이다.

킵차크 政權의 崩壞와 同時에 獨立을 獲得한 모스크바 大公國이 對內的으로뿐 아니라 對外的으로도 完全히 全露的인 權威를 갖도록 되기 爲해서는 이반三世와 그 後繼者들의 多大한 建設的 努力이 必要하였다.

蒙古勢力의 殘滓인 카잔汗國이나 아스트라한汗國의 問題等은 解決하지 않으면 안될 課題들이었음으로 이반四世는 1552년에 카잔 都城을 攻略하였으며 155년에는 불가 地方의 아스트라한汗國을 占領하였다. 그리고 東北 『루우키』 特히 오카江과 카마江의 中間地帶에 占住하여 때때로 反抗的 態度를 取하여 왔던 韃靼等도 漸次로 모스크바政權의 威令에 屈服하게 되었다. 이리해서 여태껏 모스크바政權의 權力伸長을 制限하여 왔던 領域的 障礙는 消滅하고 歐露住民들의 生活力伸長을 抑制하여 왔던 權力的 沮害는 排除되었으며 따라서 露西亞슬라브民族의 東方 乃至 東南方에로의 植民的

進出을 爲한 可能性은 크게 增大됨에 이르렀다.

카잔과 아스트라한이라는 兩汗國問題가 解決되었을뿐 아니라 킬립汗國의 問題도 1555年の 遠征으로 簡單히 解決될 수 있었으며 이로서 蒙古勢力의 主要한 殘滓는 모두 處理가 된셈이었다. 여기에 있어서 이반四世 卽 이반 雷帝가 새로이 構想하고 意圖한바는 西歐諸國의 文化를 導入하여 露西亞슬라브人들의 文化水準을 提高하고 또 商業經濟의 發展을 圖謀하기 爲하여 발틱海에로의 새로운 通商路를 開拓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의 이와 같은 國家政策은 國際的 障礙에 부닥쳐 所期의 成果를 얻을수가 없었다. 그 經緯를 略述하면 다음과 같다.

이반四世는 1558年에 발틱沿岸의 리보니아地方을 占取하기 爲한 戰爭을 開始하였었고 또 이를 爲하여 老대한 兵力을 動員하였다. 그는 一旦 占領할 수 있었던 나르바와 도르파트의 兩港에다가 이들 보다도 훨씬 더 큰 리가와 레발의 兩港을 連結시킴으로써 발틱海에로의 門戶를 크게 열어 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그의 目的과 計劃은 리가港을 갖고 있던 波蘭人들 및 레발港을 갖고 있던 瑞典人들이 利益을 크게 威脅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반의 이 싸움은 結局 失敗로 끝나지 않을수 없는 運命에 있었다.

1563年 이반四世는 드비나江岸의 폴리쯔크港을 리투아니아로 부터 奪取함으로써 赫赫한 戰勝의 記錄에 하나를 더 添加할 수가 있었다. 이리해서 이 무렵에 이반四世의 權力과 威信은 그 絶頂

에 달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다. 如何든 발틱海岸에서의 그의 이와 같은 制限된 成功들과 그의 砲兵의 威力等은 特히 西典과 波蘭 그리고 独逸人들 사이에 큰 恐怖를 惹起시켰다. 그러므로 1560年에 알브레히트·포·맥클렌 부르크公은 西歐諸國을 向하여 露西亞人들에게 보내는 武器와 軍需物資供給을 中斷하도록 呼訴하였다. 그리고 露西亞艦隊의 발틱港 出現을 念慮하는 独逸國會는 나르바港經由의 對露貿易을 禁止하는 諸措置를 取하였던 것이다.

이반四世의 統治後半期 特히 1571年에서 1583年에 이르는 期間에 있어서는 戰爭이 그칠 사이가 없었으며 露西亞는 南쪽의 크리미아韃靼人들과 西方의 波蘭人들 및 瑞典人들로 부터의 不斷한 攻擊을 받고 있었다. 露西亞는 韃靼人들의 羈絆을 벗어났었음이 事實이기는 하지만은 여러 汗들은 아직도 同國의 平和와 安全을 威脅할 수 있을 만큼 強力하였다. 1571年과 그 翌年에 크리미아의 汗인 데블레트·기레이는 北方의 모스크바로까지 侵入한 事實이 있었다. 그리고 이반四世가 비어있던 波蘭王位를 目標로 해서 서로 競爭을 벌인바 있었던 스테펜 바토리波蘭王은 리보니아爭奪을 爲한 戰爭의 再發을 機會삼아 露西亞로 侵入하였다. 큰 武人的 力量을 갖는 바토리는 드비나江岸의 플라쯔크市와 露西亞의 重要한 要塞地인 벨리키에·루키를 點領하였지만은 프스코프의 英雄的 防衛로 말미암아 그의 前進은 沮止되었다. 뒤이어서 1582年에 締結된 講和條約에 依해서 이반雷帝는 리보니아에 對한 權利를 拋棄하고 앞서 占取하였던 리투아니아의 領土를 返還하였으며 그 代價로

해서 波蘭은 『짜리』라는 그의 稱號를 承認하였다. 그 翌年에는 이반은 에스토니아를 瑞典에 넘겨주지 않을수 없었다. 이리해서 북틱海에로의 通路 따라서 西方에로의 通路를 確保하려고 한 이반 雷帝의 끈질긴 努力은 적어도 當分間은 -끝장이 난셈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이반 雷帝의 西方 進出政策은 完全히 失敗로 끝났으며 그러므로 해서 그는 다른 方面 特히 東方 乃至 南方에로의 進出을 企圖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는데 이러한 事情은 露西亞슬라브人으로 하여금 歐露에서 西伯利亞의 方向으로 그들의 植民的 活動을 轉換 展開케한 一面的 主要動因이었던 것이다.

蒙古權力下的 露西亞에 있어서의 土着的 露西亞슬라브人들과 新原的 蒙古人들의 接觸 乃至 交流가 거의 二世紀半이나 繼續되었음에도 不拘하고 人種的 系統 民族的 傳統等이 相異한 兩者사이에는 充分한 融合이나 同化的 現象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이들 兩者間의 經濟的 協力과 社會的 協調를 통한 經濟的 社會的 開發이 建設的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리고 蒙古人들은 一夫多妻主義를 實踐하고 있었기 때문에 슬라브人들과 蒙古人들 사이에 어느 程度의 人種的 混合이 이루어지지 않을수 없었음은 事實이지만은 그러나 이들 兩者間의 關係가 武力的 支配에 基礎하는 非融和的 性格의 것이었기 때문에 킵차크汗政權의 崩壞와 同時에 蒙古人의 大部分은 退散하지 않을수 없었다. 위와 같은 事實들은 蒙古勢力의 西漸에 依한 破壞的 影響 屬領植民地化로 말미암은 屈辱的 經驗과 아울러서 獨立을 爭取한 露西亞슬라브人들에게 많은 教訓을 주었을

것이며 이러한 經驗과 教訓들은 나라의 基礎를 確立한 露西亞人들
이 外域에로의 特히 廣大한 西伯利亞平原에로의 植民的 進出을 遂
行함에 있어서 적지 않은 도움으로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第三章 露西亞인들의 東進的 植民活動

가. 노브고로드大公國의 우그라進出

東部 슬라브인들이 드네프르江 中部流域에 最初의 基本的인 集團의 占住地를 設置하고, 이를 中心으로 하여, 露西亞슬라브人 初期의 植民的 活動이 展開되었다는 것은 露西亞슬라브民族의 形成과 強化 그리고 歐露社會의 建設과 發展을 爲하여 基礎的 意義를 갖는 事實이었다.

S·M·세레드닌의 所說에 依하면 露西亞슬라브인들이 露西亞平原에서 北方 乃至 東北方에로의 植民的 進出經路를 取한것은 이方面에 있어서의 抵抗力이 弱하였기 때문만은 아니었으며 거기에는 보다 더 有力한 積極的 理由가 있었다. 그리고 그理由는 첫째로 當時의 農民들이 同一場所에 오랫동안 同一場所에 머무는 일은 드물었고 그들은 주로 火田式耕作을 하면서 移動을 繼續하였으며 또 이러한 土地가 손쉽게 얻어졌기 때문이었다. 둘째로, 멀리 뻗은 鬱昌한 森林속에는 毛皮獸들이 數량이 棲息하고 있어서 當時의 貴重한 交易物資인 毛皮類가 容易하게 入手되었기 때문이었다.

元來 드네프르中部地域에서 주로 東北方에로의 進路를 取한 植民者들의 生活手段은 大概 農業的이었다. 移住民들이 增加함을 따라서 새로운 土地에는 새로운 村落들이 잇따라 形成되고 그範圍은 漸次로 擴大되어 갔다. 그런데 주로 北方으로 進路를 取하고 새로운 土地를 開拓하면서 商工業的으로도 어느程度 發展한 노브고로

드를 中心으로 하는 地方으로 進出한 植民者들 사이에는 貴重한 交易物資인 特産物 個中에도 毛皮 海象牙等を 蒐集하기 爲하여 北方森林地帶 및 北方沿海地帶를 거쳐 핀란드灣에서, 우랄北部의 方向으로 그리고 보다 더 東쪽의 方向으로 進出하는 運動이 나타났다.

I·V·쉬체글로포에 依하면 西伯利亞의 土着住民과 最初의 接觸을 한것은 勇敢한 노브고로드人들이 있으며 그들은 11世紀에 이미 西伯利亞住民과 交易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當時 우랄山脈北部의 東西兩斜面에 占住하고 있던 民衆을 一括해서 「유그라」라고 불렀으며 노브고로드人과 유그라人과의 衝突에 關한 最高의 記錄은 西歷 1032年으로 까지 溯及한다고 한다.

S·M·세레도닌에 依하면 노브고로드에서 유그라人 占住地方으로 가는 通路는 12世紀初葉에 열렸다고 하며 그以後 兩者間의 接觸은 頻繁히 있었다. 當時의 노브고로드人들이 要求한 主要한 品目은 交易物資로서의 毛皮類이었으며 이를 有利하게 獲得하기 爲한 手段으로서 그들은 유그라人들과의 特殊關係의 設定 即 유그라地域의 植民地化를 意圖하였다.

그러므로 이들 兩者間의 關係는 円滑할수가 없었으며 노브고로드人들은 여러차례에 걸쳐 유그라에 對한 武力的遠征을 試圖하기도 하였다.

노브고로드人들에 依한 東方에로의 進出活動이 繼續되었을뿐, 아니라 商工業적으로 發展하였었고 武力的으로도 弱하지 않았던 노브고로드는 마침내 유그라를 屈服시켜 이를 「블라스찌」(郷)로 삼았

다고 한다. 이는 13세기 후반에 노브고로드大公國이 유그라를 植民地로서 領有하게 되었음을 意味하는 것으로서 13世紀後半의 일이었다. 이와 同時에 植民地 即 유그라地方은 露西亞人들의 西伯利亞 方面으로의 植民的 進出을 爲한 根拠地로서의 重要한 意義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13世紀 20年代에 南露地方이 蒙古軍에게 襲撃당하고 30年代末期에서 40年代 初期에 걸쳐 歐露에 있어서의 主要諸都市는 大部分 破壞되었지만 노브고로드는 이러한 災禍를 免할 수가 있었다. 露西亞平原의 大部分이 킵차크 政權의 支配下에 놓이고 露西亞의 諸侯들 即 公侯들이 모두 自主性を 制限당하고 對外的活動을 束縛당하고 있던 時代에 있어서도 西北의 一角 노브고로드地方에서 만은 蒙古權力에 依한 制約이 자못 微弱하였으며 特히 商工業的 活動은 大體로 自由이었다. 그러므로 해서 노브고로드人들은 東方의 「자우랄리에」方面으로의 植民的 進出活動을 容易하게 繼續할 수가 있었으며 나아가서는 노브고로드大公國이 유그라에 植民地를 設定하여 이를 鄉으로 삼을수도 있었던 것이다.

이리해서 노브고로드人들은 西伯利亞 西北部를 向하여 進出하였지만 同地方에서의 그들의 權力은 強大한 것은 아니었고 實際에 있어서는 徵貢使들을 시켜 納貢을 強制하는 한便 毛皮壳買의 特權을 갖고서 交易을 營爲할 수 있는 程度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같은 事實은 그當時 歐露의 大部分이 킵차크汗政權의 支配下에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노브고로드人들 即露西亞人들의 西伯利亞

에로의 植民的 進出이 行해지고 있었으며 14世紀後半에는 그들은 이미 오비江畔에 到達하고 있었다는 것을 証示하여 준다. 그當時의 노브고로드人들은 우랄山脈을 通過하는 陸路 및 河川路뿐만 아니라 아르한겔스크에서 北氷洋岸에 沿하여 東쪽으로 航進 바이가치島와 大陸과의 사이인 유고르스키-샤르海峽을 지나 카라海로 나가서 야마르半島의 무트나야와 젤로나야의 兩江을 거쳐 오비江口에 延達하는 海路를 또한 利用하고 있었다고 한다.

노브고로드人들의 西伯利亞 方面에로의 植民的 進出은 上述과 같이 오비江畔에 까지 到達하였었는데 이때에 그들이 歐露의 東北邊境 地方을 지나 우랄山脈을 넘는 經路를 取한 것은 이들 諸地方에는 黑貂 白貂 黑狐 白狼 등의 毛皮獸가 豊富히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境遇에 狩獵業者만 에 依해서 이와같은 遠隔地方에 있어서의 毛皮産業이 經營된다는 것은 實際적으로는 不可能에 가까울 일이었다. 이와같은 毛皮産業은 相當히 큰 資本을 必要로 하는 것이었으며 그러므로 해서 資本을 提供하고 危險을 負擔하면서 狩獵과 交易를 當爲할 수 있는 有力者들의 役割이 重視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와같은 優越的 役割을 担当하였던 것이 노브고로드의 富裕한 商人들과 有力한 封建貴族들이었다. 노브고로드의 封建貴族들과 上層商人들은 어떤 意味에서는 서로 競争關係에 있었으며 따라서 이들 兩者사이에는 때때로 紛爭이 이어나기도 하였던 것이다.

나. 모스크바大公國과 「자우랄리에」(우랄以東)地方

16世紀中葉以前에 있어서의 歐露民衆의 「자우랄리에」進出은 大體로 遲遲不振한 狀態이었다. 그初期에 있어서는 毛獸皮捕獲 海象牙採取 등을 爲한 狩獵者들과 交易을 爲한 商人들이 先驅로 되어 通路를 開拓 그 經路沿線에 或은 自由村落을 만들고 或은 冬營場을 設置하면서 우랄을 向하여 漸次的으로 前進하였다. 그리고 이에 後続한 事業家 企業家等은 先驅者들이 開拓한 前人既踏의 通路를 따라 進出하면서 새로운 土地에 防備를 備풀어 寨市들을 建設하고 이들을 根拠地로하여 無住地方과 異種人地方을 占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노브고로드大公이나 모스크바 大公等은 이러한 植民的 活動에 對하여 極히 慎重한 態度를 取하였으며 그들은 最初부터 이러한 活動에 直接的으로 關與하기 보다는 차라리 私的活動의 成果들을 權力的으로 利用하려고 하는 消極的 方法을 取하고 있었다. 그러나 露西亞帝政의 基礎가 確立되고 西伯利亞에로의 進出途上에 가로 놓여있던 여러가지 障礙가 排除됨과 同時에 西伯利亞에로의 植民的 門戶는 열렸으며 國內에 있어서의 農民生活의 逼迫化는 이들 大衆의 出移住를 促進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모스크바大公國과 「자우랄리에」地方의 直接的 接觸은 킵차크汗政權이 沒落하고 모스크바 大公의 權力이 增大한 15世紀後半 以後의 일이었다. 이무렵에 歐露東北部 乃至 東部邊境에서의 植民活動은 漸進하고 있었는데 우랄地方으로 부터 來襲하는 보글人들 유그라人들 오스타크人들 등의 威脅에 對하여 모스크바政權은 어떤措置를

取하지 않으면 안될 形便이었다. 이리해서 1465년에 모스크바 政權은 우랄地方에의 遠征을 試圖하였지만은 所期의 成果를 얻을 수가 없었다. 그後 1470年代에 있어서의 노브고로드 三大公國의 沒落을 契機로하여 歐露邊境地方의 事情이 複雜化하고 「자우랄리에」에 있어서의 旧노브고로드大公國植民鄉의 狀態도 驟然하여 졌다. 여기에 있어서 모스크바 政權은 이들諸地方에 있어서의 安定과 平穩을 恢復시키기 爲한 積極的 措施로서 1483년과 1484년에 걸친 「자우랄리에 - 유그라」 地方에의 遠征을 敢行하였다. 이때에 모스크바軍의 유그라地方遠征이 主로 河川에 沿하여 大体로 12世紀頃 노브고로드人들에 依해서 開拓되었던 우랄에의 通路를 거쳐서 이루어졌으리라는 것은 틀림 없다. 이戰爭에서 敗北를 한 유그라의 諸侯는 1484年 이반三世에게 忠誠을 宣誓하였는데 이것은 勿論 유그라人들의 모스크바 政權에의 隸屬化를 意味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遠征은 露西亞슬라브 民族의 그後에 있어서의 西伯利亞 進出을 爲하여 적지않은 意義를 갖는 것이었다.

全露的 國家權力으로서의 모스크바 大公國의 基礎가 確立된 時代인 16世紀頃에 現在의 토볼스크에서 이르티쉬江을 約17杼 거슬러 올라간 地点 即 이스케르域을 中心으로 그 附近一帶에 勢力을 誇고 있었던 것이 씨비리(西伯利亞)國이다. 元來 이스케르는 韃靼人에 依한 呼稱이었고 露西亞人들은 이나라의 首都를 씨비리라고 불렀었는데 이윽고 首都의 名稱이 그대로 이나라의 呼稱으로 變하였다고 한다. 그後 우랄以東의 地方이 漸次로 帝政露西亞의 領

域에 包含시켜짐을 따라서 씨비리라는 名稱이 表示하는 範圍도 漸次로 擴大되어 마침내는 太平洋岸까지의 廣大한 地域의 地理的總稱으로 되어버렸다.

「자우랄리에」 諸民族의 모스크바政權에 對한 關係는 一定不變일 수는 없었으며 그들의 隸屬 및 服從狀態에는 情勢의 變化에 따른 強弱과 消長이 있었다. 카잔汗國의 潰滅 아스트라한의 投降 喀喇汗國의 隸屬 등은 西伯利亞의 權力者들에게 큰衝擊을 주었으며 그들이 從來의 態度를 設使 形式的인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變更시키게끔 作用을 하기도 하였다. 例컨대 모스크바政權에 對하여 反抗的 態度를 取하고 있던 씨비리國의 에디게르汗은 1555年에 使節을 모스크바에 派遣하여 카잔 아스트라한 兩汗國 占領에 對한 祝意를 이반 4世에게 奉表하였다. 그리고 이때에 使節은 이반 4世에게 씨비리國民衆의 保安과 領土의 保全을 懇請하고 納貢의 賦課와 徵貢吏의 派遣을 要望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帝政露西亞의 權威가 西伯利亞에 까지 미치게 되고 씨비리國 問題도 解決을 보게된 証左라고 보아질 수 있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事實은 그렇지가 않았다. 그後에 있어서의 事態發展은 도리어 씨비리國이 露西亞人들의 東方進出을 爲한 最短通路 - 歐露에서 中部우랄을 거쳐 東方으로 가는 - 를 가로 막고 있는 큰 障礙物이라는 것을 証示하였다.

씨비리國의 內部事情은 不安定하였다. 부하라汗 무르토자의 아들 쿠쭈이 1563年 首都 씨비리를 占領하고 에디게르汗을 殺害한 後 皇帝를 自稱하고 나섰다. 그도 一時的으로는 모스크바에 對한 患

誠을 假裝하고 納貢을 誓約하기도 했었지만 이를 반드시 嚴守하려고 하는 誠意는 없었다. 쿠츄은 그의 나라가 遠隔地에 있음을 利用하여 納貢義務를 履行하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帝政露西亞領土의 侵略을 目的으로 씨비리國 首都에서 우랄에 이르는 通路를 奪取하는 한便 투라江流域에 侵入하여 住民들로 부터 毛皮類를 徵發하기 까지 하였다. 여기에 있어서 帝政露西亞의 權力者들은 武力的 手段에 依한 씨비리國 問題의 徹底的 解決을 考慮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다. 스트로가노프家の 植民活動

씨비리를 占領하고 皇帝를 自稱한 쿠츄은 그勢力이 增함을 따라서 우랄以西 특히 우파江源流地方으로의 進出을 意圖하였다. 그런데 歐露의 露西亞人들은 그以前부터 邊境地方 「자우랄리에」地方을 向하여 植民的으로 進出하고 있었다. 이미 1558년에는 그 리고리이·스트로가노프가 邊境地方에 있어서의 大規模的인 植民事業의 經營을 企圖하였다. 페르미에서 추소바야江 沿岸에 이르는 地域에는 적지않은 空閑地 密林 草原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無主의 奴女地로서 國庫에는 아무런 利益으로도 되고 있지 못하였다는 理由 등을 들어서 그리고리이는 이地方에 對한 植民的인 特權을 모스크바當局에 請願하였다. 그리고 그가 要望한 事項인즉 1. 武器 用具 등의 供給을 얻어 自衛力이 있는 邑을 延張할것. 2. 異種外族의 侵入을 警戒하고 植民事業地를 防衛하기 爲하여 砲手 小

銃手 哨兵等을 保有할것. 3. 河川 沼澤 森林等을 開發하고 特히 廼女地를 開墾하여 耕地를 造成할것. 4. 塩湖를 發見하여 製塩事業을 經營할것 등이었는데 이반 4世는 特히 親書を 보내어 이를 認許하였다. 그뿐이 아니라 이반雷帝는 20年間 各種의 貢租 및 賦役을 免除할 것을 特典으로서 約束하였으며 또 스트로가노프家の 經營地에서 살고 있는 移住者들을 페르미長官 및 裁判官의 管轄로부터 分離시켜 이들에 對한 監督權 및 裁判權을 逃亡 竊盜等の 犯罪者를 除外하고는 - 스트로 가노프에게 委任하였던 것이다.

이로부터 10年을 經過한 1568年에는 츄소바야江口에서 카마江下 流로 向한 約20千 流域에 있어서의 植民事業의 經營에 關하여 일찌기 그리고리이·스트로가노프에게 주어졌던바와 거의 同一한 特權과 特典이 10個年の 期限附로 그의 實兄인 야코프·스트로가노프에게 賦與되었다. 要컨대 16世紀 後半에 있어서의 스트로가노프家 最初의 植民事業 經營地가 카마江 및 츄소바야江의 流域에 設定되었었는데 이經營地는 邊境地方 特히 우랄山脈에 近接한 地帶에서 經營된 植民事業으로서는 大規模的인 것이었다.

스트로가노프 一族은 私財를 投入하여 투라 토보르兩江地帶에 있어서의 漁獵區를 獲得하려고 하였고 토보르 이르티쉬 오비等 諸江의 沿岸 및 其他 地域에 武装根拠地를 設定하려고 하였는데 그러기 爲해서는 于先 東쪽 西伯利亞에로의 通路를 確保할 必要가 있었다. 스트로가노프家の 이러한 活動은 1574年頃부터 計劃的으로 開始되었었다고 하는데 要컨대 그들은 앞서 植民事業上의 特權과

特典을 賦與받았던 地域을 第一의 根拠地로 하여 「자우랄리에」에 進出하고 그當時 우랄地方에 對한 侵略的 行動을 取하면서 있던 씨비리國을 膺懲하고 그領域內에 다시 根拠地를 設定하고 나아가서 東方에로의 植民活動을 加一層 進展시키려고 企圖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에 對하여 이반 4世는 1574年 5月 30日附의 親書를 보내어 투라 토보르兩江地帶에 要塞을 築營할것 武器와 要員들을 整備할것 製鐵所 漁場 및 耕作地 附近은 勿論이고 토보르江 兩岸에도 沿한 地帶에 植民者들의 家屋을 建築하여 이地方의 植民的 開發을 促進할것 그리고 犯罪者를 除外한 自由人들을 募集하여 植民事業에 使用할것 等の 特權을 賦與하였다. 이것은 모스크바 當局이 「자우랄리에」 特히 씨비리國으로의 實際的 進出을 是認하고 그領域內에 있어서의 植民事業의 經營을 許可하였음을 意味한다. 그리고 이들 諸地區에 살고 있는 定住者들에 對하여 賦役 및 勞役이 免除되고 植民的 으로 開發된 地方의 住民들에 對해서는 漁業 狩獵에 對한 課稅免除가 特典으로서 許容되었는데 이와같은 事實은 露西亞政府가 個人的으로 企圖한 植民事業에 對하여 큰 國家的 意義를 認定하고 邊境地方에서의 植民事業의 進展을 積極助長하려고 하였다 는 뚜렷한 証左인 것이다.

라. 예르마르크의 씨비리國 遠征

上述과 같이 스트르가노프家の 兄弟가 페르미를 中心으로 한 地方 特히 카마江 및 그支流 추소바야江의 流域에서 植民事業地의

建設에 從事하고 있던 무렵 코사크(露語로는 카자키-)라고
通稱되는 勢力의 一部가 盜賊團을 形成하여 불가江 一帶에서
跳梁 이로말미암은 航行 船舶들 및 沿岸住民들의 被害事件이
頻發하고 있었다. 이에 關한 情報가 모스크바에 傳達되자 政
府當局은 그頭領들의 逮捕를 命하는 同時에 討伐隊를 派遣하였으
며 또 이반 4世는 이들掠奪群에 對하여 事前에 死刑을 宣告시
켰다. 이때에 그들의 大部分은 逃亡하였고 頭領 예르마크·티
모페예비치도 다른 頭領들과 同一한 行動을 取하여 불가江에서
카마江 上流쪽으로 逃走하였다. 이리해서 예르마크가 스트로가
노프家 經營의 植民事業地에 나타난것은 1578年이었다. 그당
時 創業者 야코프 그리코라이 兄弟는 이미 他界하였었고 그들
의 아우 세몬과 야코프의 아들 막심·야코블레비치 그리코라이
의 아들 니키타·그리코레비치 등이 事業을 繼承하고 있었다.
여기에 있어서 예르마크와 스트로가노프家와의 사이에 特殊關
係는 開始되었으며 예르마크의 씨비리遠征은 스트로가노프家
의 植民事業과의 關聯下에 計劃되고 實踐되었던 것이다.

頭領 예르마크가 指揮한 코사크들은 불가江에서 暴威를 떨친
掠奪者들로서 定住도 없고 定職도 없이 官廳에게 追跡當하는
無類漢들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무렵에 스트로가노프家は 「자
우랄리에」地方으로의 植民的 進出을 意圖하면서도 씨비리國으로
부터의 侵攻 威脅을 痛感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르마
크의 씨비리遠征을 積極 援助하려고 이리함으로서 相互的 利益

을 얻으려고 期待하였다. 이리해서 이들 兩者間에는 相當히 緊密한 連繫과 協力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한편 예르마크 一黨으로서도 불가江流域으로 되돌아 갈수도 없었고 그렇고 해서 스트로가노프家의 植民事業地에 定着하기도 困難한 形便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乾坤一擲의 씨비리遠征을 敢行함으로써 그들 自身の 活路를 開拓하고 아울러서 國家的 事業達成의 빛나는 榮譽를 期待하려고도 하였을 것이다.

예르마크가 引率한 遠征隊의 코사크數는 約 540 名 (I . 스펙터의 「露西亞文化史入門」에는 1,600 名으로 되어있음) 이었다고 하며 이들에게 必要한 食糧 衣服 武器等은 스트로가노프家로부터 提供받았다. 예르마크의 遠征隊는 1581 年 9 月 추소바야江을 溯航하며 그 上流에서 冬營을 한後 다음해인 1582 年 봄에 우랄以東으로 進出하였다고 한다. 河川을 따라 地峽을 거쳐서 「자우랄리에」의 투라江에 다다른 코사크들은 그地方의 住民과 衝突을 하였으며 그後 싸움을 繼續하면서 現在의 튜메니를 占領하여 冬營을 하였으며 다음해인 1583 年에 씨비리國의 軍隊와 激戰을 展開한後 토볼江으로 向하였다. 그當時 씨비리國의 實力은 過大하게 評價되고 있었기 때문에 코사크들의 少數集團으로서 同國을 占領한다는 것은 期待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實際에 있어서는 예르마크의 遠征隊는 予想以上の 戰果를 건우었다. 이리해서 예르마크는 1583 年 가을 토볼江口에 到達하였으며 이로부터 이르티쉬江으로 進出하여 그의 部隊가 씨비리國의 首都 이스케르를 占領한 것은 同年 10 月의 일이다.

었다고 한다.

씨비리國의 韃靼人들은 이미 土着化하고는 있었지만 그들의 原住民에 對한 關係는 權力的이었기 때문에 이들 兩者間에 있어서의 生活上의 共同紐帶는 微弱한 것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예르마크 遠征隊와의 戰鬪에서 敗北를 한 쿠쭈는 그의 殘存同族과 함께 草原地帶로 逃走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코사크들 自身도 波勞困憊하여 자칫하면 戰果의 維持도 困難할 狀態이었다. 이리해서 兵力補強의 必要를 切感한 예르마크는 露西亜政府에 對하여 그의 遠征經過 및 戰果를 報告하는 同時에 援軍의 早速한 派遣을 要請하였다.

事前에 連絡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것이 「無法者들」에 依한 遠征이기는 하였지만 씨비리國의 占領이라고 하는 새로운 事態에 비추어서 모스크바 當局은 1584年에 세른·볼코프스키 - 指揮下의 約 500名의 援軍을 派遣하였다. 모스크바로 부터의 援軍의 加勢를 얻은 遠征隊는 冬營을 한後 다음 해인 1585年 일찌기 逃走하였던 쿠쭈等을 討伐하기 爲하여 이르티쉬江을 溯航하였는데 現在의 타과附近에서 韃靼軍의 襲撃을 받아 적지않은 損害를 입었다. 이때에 예르마크 세른·볼호프스키 - 等도 戰死하였기 때문에 殘存者들은 오비江과 페초과江 等에 沿하여 本國을 歸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遠征勢力이 撤退한 後 이 征服地에서는 土侯들이 要塞들을 修築하였으며 이리해서 씨비리國은 또다시 西伯利亞 韃靼의 權力 밑으로 復歸하였던 것이다.

마. 스트로가노프家 植民事業의 意義

北部 드비나江 비미江 및 페초라江 本支流에 沿하여 우랄에 이르는 그리고 또 아르한겔스크에서 北氷洋 海岸에 沿하여 오비江口에 達하는 이들 陸海交通路는 歐露의 東北邊 住民이 漁業 獵業 등을 爲하여 利用하였으며 노브고로드人들은 주로 毛皮類 獲得을 爲하여 자주 往來하였다. 그러나 카마江 및 그東쪽의 諸支流에 依한 交通路는 露西亞人들의 西伯利亞에로의 植民的進出을 爲하여 重要的 意義을 갖는 것이었다. 카마江系의 諸河川에 依한 所謂 『캄스키-푸우찌』(카마 交通路)는 所謂『페초르스키 푸우찌』(페초르 交通路)와 마찬가지로 오랜 過去에 開拓되었었다고 하지만 오랫동안 露西亞人들에게는 閉鎖되었었다.

모스크바 政權에 依한 카잔評國의 鞏固는 必然的으로 露西亞슬라브人들과 『자우랄리에』에 있는 韃靼系住民들과의 接觸을 誘致하였으며 그것은 同時에 露西亞帝國의 國家的 發展과 露西亞슬라브人들의 植民的進出을 爲하여 카마交通路가 얼마나 重要的 意義를 갖는 가 함을 밝혀 주었다.

카자니汗國의 潰滅은 歐露의 民衆에게 東方邊境 및 『자우랄리에』에로의 植民的 門戶를 열어주었는데 이에 對한 顯著한 例證은 上述과 같은 스트로가노프家에 依한 植民事業의 經營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다.

이와같이 植民的門戶가 열리고 植民者들의 活動範圍가 擴大됨을 따라서 植民者들과 原住民間의 關係는 複雜化하지 않을 수 없다.

原住民에 屬하는 森林이나 狩獵地에 侵入하여 土地를 開發하고 工場을 開設하는 新來植民者들과 그 土地에서 驅逐되는 立場에 있는 異種民들과의 關係가 兼滑할수 없을 것은 明白한 事理이며 이들 兩者사이에는 敵對的 紛爭이 때때로 일어났다. 植民者들은 暴力과 威嚇과 壓迫으로서 原住異種人들을 制壓 乃至 排除하려고 하고 原住民들은 生存本能과 原始的 感情으로서 이에 反撥 乃至 抵抗을 하려고 한다. 例컨대 추소바야江沿岸의 보굴族이 스트로가노프家の 自由村落을 襲擊하며 그屋舍를 燒却하고 穀物類를 掠奪하고 農民들을 붙들어가고 製塩場 製粉場 等を 破壞한 事件이 發生한 일도 있는데 이러한 暴行은 「자우랄리에」에서 進入하여온 西伯利亞 韃靼人들이 介入하였을 境遇에 極히 危險한 樣相을 띠고서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이 우랄以西의 露西亞人 植民事業地에 對하여 公公然한 侵攻을 企圖하는 일은 쿠츄이 씨비리의 支配者로된 以後에 加一層 頻繁해 졌었다고 한다.

上述과 같은 事情下에서 스트로가노프家は 防備를 堅固히 하기 爲하여 柵寨들을 建設하는 同時에 이를 支撐點으로하여 그들의 植民事業을 加一層 擴大시키려고 하였다. 이리해서 스트로가노프家の 사람들은 여러重要地點에 所謂 寨市 (gosodok) 들을 建設하고 거기에다 砲 銃等과 함께 砲手 銃手等을 配置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建設한 寨市로서는 칸코르寨市 케르제단 寨市 야이벤스키-寨市 추소프스키-寨市 쉘벤스키-寨市等等을 例舉할 수가 있다.

上記와 같은 寨市들은 植民者들의 保護뿐 아니라 製塩事業場等

經濟施設의 防衛를 目的하는 것이었지만은 實際에 있어서는 邊境地方에 点在해있던 이들 諸寨市는 露西亞人들의 東方에로의 植民的 進出을 爲한 前哨基地로서의 役割을 또한 遂行할 수가 있었다. 그뿐 아니라 이들 諸寨市는 「자우랄리에」로 부터의 異種外族들에 對한 防衛網으로서의 機能을 아울러서 遂行할 수가 있었으며 따라서 스트로가노프家에 依한 寨市 建設은 「자우랄리에」에 對한 一種의 防衛陣 形成을 意味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해서 이반 4 世 卽 이반雷帝는 스트로가노프家의 페르므地方 守備를 積極援助하는 同時에 이들에게 軍事的 奉仕를 義務지우려고도 하였던 것이다.

에르마크의 세비리國 遠征前後를 通하여 스트로가노프家는 邊境地方의 植民的 開發과 防備施設工作 그리고 「자우랄리에」으로의 征服的 乃至 植民的 進出에 있어서 直接的 또한 間接的 役割을 遂行하였다. 이것은 大体로 우리가 위에서 보아온 바와 같은 事實들이다. 그러나 이미 그交通路가 開拓되고 基礎的 作業이 끝난 以後에 있어서는 露西亞政府는 積極的 方針을 가지고 이에 臨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스트로가노프家의 植民的 活動도 政府施策의 制約下에서 漸次로 그自主的 傾向을 減縮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바. 이반 4 世와 東漸政策

이와같은 事態變化는 露西亞民衆의 植民活動이 國家權力에 依해서 徹底히 抑壓 妨害됨을 意味하지는 않고 도리어 政府의 植民政策에 依拠한 國民的 植民活動으로서 助長 乃至 誘導됨을 意味하

는 것이었다. S·V·바흐루신의 見解에 依하면 예르마크의 遠征以後에 있어서는 露西亞 首都에서 作成된 計劃案을 따라서 國家權力에 依한 組織的인 西伯利亞 征服이 行해지기 始作하였다고 한다. 西伯利亞에로 멀리 進入하기 爲해서는 背後의 交通路를 確保하여 들 必要가 있었다. 그러므로 해서 于先 투라江畔에 前哨基地로서 意義를 갖는 要塞都市 튜메니가 建設되었다. 그리고 韃靼系 權力者들과의 鬪爭이 不可避하였던 그當時에 있어서의 都市建設은 露西亞政府가 派遣한 遠征軍을 中心으로 한 遠征的 活動에 依해서 行해질 수 밖에 없었다. 이리해서 1586年에 있어서의 튜메니 寨市에 뒤이어 다음해인 1587年에는 씨비리首都 이스케르附近인 이르트쉬 토볼兩江合流 地點에 토볼스크市가 세워졌는데 이윽고 이 新興都市는 植民上 行政上의 中心的 重要地點으로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다브다江沿岸 펠름地方에 蟻居하여 歐露邊境을 여러번 侵犯한바 있는 보글人들이 1592年에 征服된後 그中心地點에 펠름스키-寨市가 建設되었다.

上述과 같은 方法에 依하여 16世紀末까지에는 비료조호 수르구트 타라 나름 케즈크等の 諸寨市가 露西軍에게 攻略된 여러地方에 建設되었으며 이들 諸武裝地點들은 後 露西亞슬라브人들에 依한 植民活動의 中心으로 되었던 것이다. 이미 1590年에는 中央政府로부터 現地軍政官에게 보내온 命令을 따라 브체다 수호나 兩江合流地方의 솔리·브체고즈크에서 西伯利亞에로 農民 30家族의 移住가 行해졌는데 이것은 西伯利亞에로의 最初의 官營農民移住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또 西伯利亞 移民의 一面的 特徵으로 되었던 流刑 植民도 이미 1593年에는 나타났었으며 그 最初의 流刑移住地로 된것이 펠름이었다고 한다.

모스크바政權下에서 行해진 「자우랄리에」에의 武力的 遠征을 端緒로 하여 帝政 初期에 있어서의 西伯利亞에로의 植民的 擴張政策이 劃期的 進展을 보이게끔된 主要 原因은 몇가지 있겠지만은 그중의 하나로서 우리는 所謂 大發見時代로서의 그당시에 있어서의 國際的 動向을 들어볼 수가 있을것이다. 그당시 유럽人들은 西歐에서 西北方 또는 東北方에로의 探險的 航海에 依하여 東洋 特히 印度 乃至 中國에로의 通路開拓을 主要課題로 삼고 있었는데 이러한 課題와 目的을 갖는 그들의 活動이 露西亞슬라브民族의 西伯利亞에로의 植民的 進出에 相當한 影響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음은 勿論이다. 例컨대 1553年 英國船周를 거느린 H·윌러비-와 R·채셀러 등의 露西亞探訪이 있었고 이探訪이 契機로 되어 이윽고 英露合辦의 모스크바 會社가 設立되었는데 이러한 關係로 말미암아서 英國人들은 西伯利亞의 地理的事情 特히 오비江 예니세이江 등의 地理的 狀態와 船舶航行 條件等에 關하여 不斷한 關心을 表示하였으며 그들의 이러한 關心表示는 또한 露西亞人들의 西伯利亞 進出政策을 刺戟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미 위에서 論述한바와 같이 1558年 이반4세가 발틱海에로의 進出을 爲하여 이르렀던 戰爭은 20余年을 끝은 뒤에 結局 敗北로 끝났으며 그의 西方進出政策은 完全히 失敗하였다. 이리해서

錯雜한 國際關係上的 쓰라린 經驗을 하게된 이반雷帝로서는 그의 墜落된 威信恢復과 새로운 對外的 伸張을 西方이 아닌 다른方面에서 追求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東方에 對해서는 西歐의 先進諸國이 이미 努力을 扶殖擴大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서는 自然 主로 東方인 広漠한 西伯利亞의 方向에서 植民的 發展의 進路를 開拓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반雷帝와 그의 모스크바政府가 西伯利亞에로의 植民的 進出問題에 對하여 얼마나 큰 關心과 積極的인 態度를 보이고 있었던가 함은 예르마크의 씨비리遠征에 關한 部分을 비롯한 以上の 여러 軍대의 叙述에서 넉넉히 이를 窺知할 수 있을 것이다.

사. 코사크人들

帝政露西亞의 東漸政策 即 西伯利亞에로의 植民的 進出政策은 主로 武力的 征服的 性格을 띠는 것이었으며 露西亞人들의 이와같은 武力的 進出의 最前線에서 가장 重要的 役割을 担当 遂行한 것이 다름아닌 코사크人들이었다. 이에 對한 가장 顯著한 實證을 우리는 예르마크의 씨비리遠征에서 찾을 수가 있지는 코사크人들의 이와같은 役割은 露西亞人들의 西伯利亞 征服이 一段落될때까지 終곧 繼續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露西亞人들의 東漸政策과 西伯利亞 進出過程을 올바르게 理解 把握하기 爲하여는 우리는 코사크人들의 歷史的 由來와 性格 등에 關한 正確한 知識을 所有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14世紀에 우크라이나는 제다민 공이 指揮하는 리투아니아軍에 依하여 征服되어 北方모스크바와 韃靼의 支配로 부터 完全히 分離 되었다. 15世紀 中葉頃까지는 韃靼이나 리투아니아의 支配를 아주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한 많은 露西亞인들이 그리고 韃靼人들까지가 高度의 獨立을 享有하고 있던 南部스테프의 辺境地方으로 移住를 하여갔다. 그들의 가장 利得있는 職業中の 하나는 隊商들을 襲撃掠奪하는 일이었다. 이와같은 盜賊들은 土耳其人들과 韃靼人들에 依하여 「코사크」-露로는 「카자크」-라고 불려졌다. 強盜라는 土耳其말은 「카자크」이며 같은 말말이 韃靼語에도 있기는 하지만 韃靼語의 「카자크」는 「輕武裝한 軍人」을 意味한다고 한다.

이반雷帝의 暴圧적인 專制政治가 코사크國들의 成立을 크게 促進하였다는 것은 事實이다. 그의 強圧政治가 極端化하였을 무렵 많은 人들 特히 下流階層 出身의 많은 人들은 「自由人들의 나라이며 武勇者들의 故郷」인 코사크地帶로 逃亡하여 갔다. 이윽고 이 異質의 人口集團은 東西 露西亞의 東 코사크國과 西東 露西亞의 자포로그 코사크國이라는 두 나라를 成立시켰다. 이들 兩國의 政府는 아주 民主的이었다. 모든 公民들은 平等視 되었으며 모든 財産은 共同所有이었다. 「아타만」 또는 「헤트만」이라고 불려지는 國家의 首領은 一般投票에 依하여 選出되었으며 그는 嚴格히 制限된 權力을 갖고 있을 뿐이었다. 司法權은 人民會議에 依하여 掌握되고 있었으며 重大 犯罪者들은 溺死形으로써 処罰되었다.

코사크인들의 政治生活에 있어서의 特異한 事實의 하나는 支配階級の 成員들에게는 獨身生活이 強制되고 있었다는 點이다. 이들 兩코사크國은 그들의 「祖國 即 露西亞帝國에 忠誠을 다해야 한다는 問題에 대해서는 아주 無關心하였으며 그들은 그들의 氣分과 利益에 맞추어서 때로는 露西亞를 爲하여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露西亞를 反對하여 싸우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基督教文明에 對하여 無意識的인 그러나 效果的인 貢獻을 하였다. 緩衝國家로서의 그들의 役割로 말미암아 回教勢力의 加一屬侵入이 沮止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混血된 先祖의 後孫들인 粗暴한 이들 코사크人들은 亞細亞의 侵入者들에 못지 않게 勇猛스러웠으며 그들은 侵入者들에 依한 完全한 歐羅巴蹂躪을 防止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戰鬪와 掠奪을 一種의 生業으로 삼고 있던 코사크人들은 軍事的 敎育과 訓練의 體系를 發展시켰으며 그들은 亂暴殘忍한 戰鬪에 能熟하였다. 強制的인 軍事的 服務는 18歲가 되어 「스타니자」 (Stanissa)에 入隊 할 때부터 始作하는 것이었다. 兵役期間은 17年이 있으며 그중의 12年이 現役期間이었다. 將兵들의 裝備과 被服은 政府에 依하여 支給되었다. 第一次世界大戰初期에는 코사크軍의 兵力 總數는 約3,000,000이었으며 即刻的으로 動員可能한 兵力이 約300,000이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 코사크兵力은 돈 쿠반테레코 아스트리한 오렌부르크 우랄 西伯利亞 쉐미렛첸스크 자바이칼 아무르 및 웃수리等 11個 軍團으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軍事的 力量을 갖는 코사크人은 那當時 庫楚汗의 支

配下에 있던 西伯利亞를 征服하여 이반 雷帝의 巨大한 國家 即 露西亞 帝國을 建立하는 일에 寄與할 수가 있었다. 스트로가노프 家의 積極的 支援을 받은 예르마크麾下의 코사크軍이 西伯利亞遠征에서 堅固한 成果에 對해서는 이미 위에서 論述한바 있거니와 그以後 코사크人들은 위에서 言及된 바와 같이 西伯利亞 全境에 걸쳐 植民的 進出過程에 있어서 勇敢한 武力的 前衛의 役割을 担当 하였던 것이다.

第四章 植民的擴張의 積極化

가. 오비江地方

에르마크의 씨비리國遠征에 對한 救援隊派遣을 契機로 하여 帝政露西亞의 植民政策은 積極化하였다. 1584 年에 있어서의 씨본·볼호프스키 - 指揮下의 救援隊에 뒤이어서 다음해인 1585 年에 派遣된 軍政官 이반·만스로프의 遠征隊는 이르티슈江口附近에 堡壘를 構築하였다. 그後 오비江 및 이르티슈江 方面에는 많은 柵寨 寨市가 建設되었으며 이러한 寨市들은 歐露民衆의 植民的 活動을 爲한 前進基地로 되었다. 이와同時에 遠征隊는 잇따라 派遣되어 오고 軍事的 施設도 增強되었다.

이반 4 世가 別世한 後 — 16 世紀末葉에서 17 世紀初葉에 걸쳐 — 數十年間 政治的 混亂이 繼續하였지만은 이 混亂期에 있어서 까지 도 東方을 向한 露西亞人들의 植民運動은 大體로 前進的 趨勢를 維持할 수가 있었다. 이와같이 오비江地方의 主要部分에 對한 征服的 植民地化가 積極 推進되고 있었던 事實에 對하여 S.V. 바흐루신教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이 地方의 征服은 露西亞의 西伯利亞征服史에 있어서의 劃期的인 一段階이며 그리고 西伯利亞에 對한 政策의 一般的 方針이 거의 完全히 政府의 中央機關에 依해서 堅持되고 있었다는 것은 特徵的인 일이다. 總括的 計劃뿐만이 아니라 이에 關한 個個의 指令도 모두 모스크바에서 立案

되었으며 또 이指令에 依拠해서 現地の 軍務知事들은 그들의 業務를 遂行하였던 것이다』

에르마크에 依한 시비리 遠征以後 西伯利亞에 對한 露西亞인들의 所謂 國家的 進出運動이 大體로 征服의 性格을 띠는 것이었다함은 이미 위에서 言及한바와 같거니와 이와같은 武力的 征服의 性格은 西部 西伯利亞의 植民化過程에서 特히 顯著하게 나타났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時代에 있어서의 露西亞人植民者들과 原住異種人들과의 接觸 交涉 乃至 鬭爭等의 問題와의 關聯에서 우리는 後者에 比하여 前者의 有利함과 優越함을 認定하지 않을 수가 없다. 첫째로 露西亞인들의 精神的 優越성을 들 수가 있는데 그들은 一種의 國民的 自覺 그들自身的 背後에는 強대한 國家權力이 있으며 그들自身은 露西亞帝國의 國民일뿐 아니라 基督教徒이기도 하다는 露西亞的 民族意識이 強化되고 있었다. 둘째로 露西亞인들의 物質的 優越성을 들 수가 있는데 그들은 火器를 使用하였고 이로써 未開한 原住民들을 恐怖로 떨게할 수가 있었으며 그들은 構柵築寨의 技術이 能하여 이로써 原住民들에게 威力을 誇示하였고 나아가서는 西伯利亞의 地理的特徵이라고 할 豊富한 河川網을 巧妙히 利用함으로써 遠隔한 地方으로도 比較的 迅速한 進出을 할 수가 있었다.

1600년에는 北邊오비灣沿岸地方 全域의 植民地化를 目的으로 하여 當時에 이미 西部 西伯利亞經營의 中心地로 되어 있던 토볼스크에서 타즈江의 方向으로 大規模의 遠征隊가 派遣되었다. 이遠征

計劃은 準備不充分等の 理由로 말미암아 그 實行上 蹉跌이 생겼으며 遠征途中 原住民의 襲擊에 依한 犧牲도 적지않았지만 一部 殘存者들은 前進을 繼續, 마침내 타즈江에 到達하였다. 이리해서 그들은 거기서 만가제야寨市를 建設하였는 바 이寨市는 後日에 예니셰이江地方과 그리고 러나江方面에로의 進出을 爲한 根拠地로 되었다.

오비江을 따라 타즈江流域에로 向하는 上述과 같은 遠征과 並行하여 또하나의 遠征이 오비江을 溯航하여 이루어졌다. 이 遠征隊는 15世紀末頃에 建設된 쭈르구트를 威脅하고 있던 오스타크族을 鎮壓하면서 오비江上流로 向하여 나룸地方을 攻略한後 다시 前進 오비江支流 토미江을 溯航하여 1904年 톰스크寨市를 建設하였다. 그리고 1618년에는 이方面에 있어서의 最東方拠点으로서 토미江畔에 쿠즈네쭈키柵寨을 建設하였다.

總括적으로 이를 概觀하건대 帝政露西亞 勢力의 西伯利亞進出은 17世紀十年代에 오비江流域까지 到達하였는데 이는 歐露의 東部邊境에서의 植民事業이 『자우랄리에』까지 推進擴張된 것이며 특히 스트로가노프家の 植民活動과 예르마크의 씨비리國遠征의 諸成果를 露西亞政府가 更層 擴大시킴으로써 얻어진 것이다.

帝政露西亞의 勢力이 『자우랄리에』를 거쳐 未知未開의 地方에로 東進하게 되자 西伯利亞에 對한 植民的意慾이 旺盛한 露西亞民衆의 東方進出 運動은 積極化하였다. 그리고 西伯利亞의 未知未開의 地方에로 活路를 開拓하면서 先驅한 것은 主로 狩獵者이었으며 毛皮

類를 蒐集하면서 情報을 傳達한 것은 商人들이었다.

狩獵者 商人들뿐만이 아니라 所謂 民兵들도 또한 西伯利亞에서의 先驅的 行動者들이었다. 民兵이란 勿論 商人의 境遇와 마찬가지로 危險과 策任을 스스로 負擔하면서 東方에로의 遠征을 企圖한 者들이다. 이와같은 民兵의 大部分은 峻嚴한 自然的 環境下에서 特히 食量의 不足 必需物資의 欠乏等으로 困難을 當하였을뿐 아니라 被 征服住民의 永續的 反抗等으로 疲勞와 困苦를 겪었으며 이와같은 諸困難이 重疊 深刻化함을 따라서 마침내 그들은 束手無策의 破綻之境에 이르지 않을수 없었다. 여기에 있어서 露西亞政府는 이와같은 結果的 事態를 權力的으로 接收하여 이를 收拾하였으며 이러하므로서 政權當局은 民兵들의 征服地를 名實相副하게 植民地化하여 버린다는 것이 一般的 通例로 되어있었다.

西伯利亞東漸의 所謂 無統制時代에 있어서의 露西亞인들의 自發的 恣意的 活動에 對하여 M.N. 피사레프는 그의 著書 『西伯利亞—歷史 地理概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露西亞인들의 抑制困難한 이 自然力的 運動을 考察하여 본다면、當時에 있어서의 露西亞인들의 非常한 氣力과 企業慾과 勇敢性等에 對하여 驚嘆하지 않을 수 없다. 峻烈한 寒氣 人煙의 稀薄 鐵死의 恐怖 自力の 貧弱 및 其他 어떠한 艱難과 辛苦도 그들을 挫折시키지 못하였으며 이리해서 그들은 漸進的으로 一步一步 韃靼人 오스타人 퉁그스人等の 土地를 占領하여 옴스크 톰스크 예니세이스크等等的 諸案市를 順次로 建設하여 갔던 것이다』 이렇듯 活潑한

植民運動이 發現하게 된 原因은 決코 單純할 수가 없었지만 그 有力한 一要因으로서 우리는 當時의 西伯利亞가 主로 毛皮資源이 豊富한 未開發地域이었다는 事實을 想起할 수가 있다. 그리고 17世紀 初葉以後의 西伯利亞에서의 發見 및 占領은 반드시 모스크바政府의 直接的 指令下에 이루어 지지는 않았었지만 이윽고 政府當局은 이미 行해지고 있던 征服事業을 完遂하려고 하는 한편 이미 占領된 地方들에 對한 統治를 組織化함으로써 이들 諸地方을 完全히 領有하겠금 되었다.

나. 예니세이江地方

露西亞슬라브人들의 예니세이江流域 地方에로의 植民的進出은 오비江方에 있어서의 柵寨 및 其他의 軍事施設이 行해진 地點을 根拠地로 하여 所謂 『征服線延長』의 形態로 實現되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두 갈래의 經路가 있었는데 하나는 오비江의 支流 켜찌江에 沿한 東方의 交通路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만가제야를 經由하는 北方의 交通路였다.

켜찌江에 沿하여 東進하고 예니세이江 本支流를 溯航하는 所謂 東方經路에 依한 進出은 이미 17世紀初葉에 開始되었었다. S.T. 바흐루신에 依하면 켜찌江畔에는 이미 1605年頃에 켜토스카 柵寨가 建設되었고 1618년에는 켜찌江과 예니세이江支流 켜미江과의 連水陸路上에 마코프스키-柵寨가 다음해인 1619년에는 예니세이江畔에 예니세이스키-柵寨가 그리고 數年後에는 보다 더 上流인 地點에

크라스노야르스크柵寨가 잇따라 建設되었다. 크라스노야르스크의 建設과 同時에 露西亞人들은 예니셰이江 上流를 一層 더 溯航하여 17世紀에 있어서의 進出 最東端 地方에 到達하였지마는 - 오비江上流에로 溯航進出하였을 때 經驗하였던 바와 마찬가지로 - 韃靼系汗들의 反擊을 만나 南進을 沮止당하였다. 이들 韃靼汗의 勢力은 - 內紛等의 原因에 依하여 - 그後 곧 弱화하였지마는 이들을 代替하여 登場한 中가르族은 露西亞人들에게는 一層더 危險한 敵이었다고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기르기즈族과 투빈族等을 그 保護下에 두고 있던 中가르族은 하나의 強大한 勢力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上述과 같이 예니셰이江 上流地方 特히 크라스노야르스크方面에서 露西亞人들의 南方에로의 進出은 沮止되었지마는 이보다 앞서 一部の 露西亞人들은 이미 方向을 바꾸어 예니셰이스크에서 앙가라江에 沿하여 東進의 經路를 더듬고 있었다. 이 方面에서도 그들은 통구스族의 反抗에 遭遇하였지마는 이미 1630년에는 련스키 - 連水陸路에 일립스키柵寨를 建設하였다. 이 柵場은 그後 려나江으로 通하는 交通路 發見上의 重要 拠点으로 되었다. 1954년에는 앙가라江 上流地方에 占拠하고 있던 부랴트人들에 對한 앙가라江 沿岸地方의 防衛를 爲하여 발라만스키柵寨를 建設하였다. 이보다 數年 앞서서 이르쿠트江과 앙가라江의 合流地点에 冬營場(지모비에)를 建設하였는데 이 冬營場은 앙가라江支流인 오카江流域에 占拠하고 있던 부랴트人들을 征服하기 爲한 것이었으며 또 이를 基礎로 해서 後日의 이르쿠츠크市는 勃興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만가제야를 經由하여 北方의 交通路를 따라 예니셰이江 地方으로 向하였던 露西亞人들은 東方의 交通路를 따라서 예니셰이江 上流地方으로 向하였던 部隊가 예니셰이스크 寒市를 建設하기 보 다도 數年앞서서 예니셰이江 下流地方에 到着하고 있었다. 그러나 海路를 따라 東進하였던 露西亞의 狩獵者들은 벌써 16世紀末葉에 예니셰이스키 連水陸路를 거쳐 예니셰이江支流 투르한江으로 進出하 였었고 17世紀初頭에는 투르한스크에 根拠地를 設定하였었다. 이 땅 卽 투르한스크는 그後 露西亞슬라브民族의 殖民的 東漸過程에서 重要な 役割을 擔當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 레나江地方

만가제야 투르한스크 등의 예니셰이江 下流地方에서 또는 예니 셰이스크 크라스노야르스크 등의 예니셰이江 上流地方에서 狩獵에 從 事하고 있던 露西亞人들은 보다 많은 毛皮類를 獲得하기 爲하여 黑貂 및 其他 毛皮獸資源이 豊富한 地區를 찾아서 轉轉하였으며 이들 諸地方에서의 獵獲이 減少하게 되자 그들은 東方으로의 移動 을 企圖하였다. 오비 예니셰이 레나等 諸河川의 上流部分은 모두 支流들이 서로 錯綜하였었기 때문에 이들 諸河川 相互間에는 極히 近接한 部分이 많이 있다. 이것은 廣大한 西伯利亞에 있어서의 뚜렷한 特徵的 事實이며 이러한 特徵的 地理的事實로 말미암아 그 곳 住民들은 예로부터 交通上 많은 便益을 보아왔음이 또한 事實 이다. 17世紀頃 예니셰이江地方에서 레나江地方으로 移動을 할

때에는 連水陸路가 많이 利用되었는데 이러한 交通路의 하나는 니
지나야 통구스카江에 沿하여 그 上流로 올라가 連水陸路를 거쳐서
빌류이江으로 옮겨간後 다시 이에 沿하여 레나江不流方向으로 나아
가는 交通路이며 다른 하나는 예니셰이江下流를 溯航하고 앙가라江
에 沿하여 그支流 일립江으로 나아가 所謂 렌스키連水陸路를 거쳐
서 쿠타江으로 나아가며 거기로부터 바이칼湖方面 特히 그 西方
乃至 北方의 地區에로 進出할 수 있는 그러한 交通路였다. 그러
나 예니셰이江과 레나江과의 中間地帶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露西亞
人들이 西伯利亞各地에서 經驗한 바와같이 싸모예드族 및 其他 異
種人들로부터 襲撃을 받을 憂慮가 있었다. 그러므로 새로운 地方
에 있어서의 狩獵人들의 活動을 保護할 目的等을 爲하여 政府 및
地方官憲은 마침내 1929年 토블스크에서 編成된 삼손·나바즈키指
揮下의 遠征隊를 레나江地方으로 派遣하였으며 그後에도 이러한 性
格의 遠征隊가 여러차례 派遣되었다. 이와같은 遠征的 活動이 繼
續되는 過程에서 該地方에는 많은 柵寨들이 잇따라 建設되었다.

1832年 예니셰이스크의 百人隊長 포트르·베케토프는 遠征隊를 거
느리고 앙가라江을 溯航하여 그支流 일립江으로 나아가 連水陸路를
通過한 後 다시 쿠타江을 거쳐 야쿠트人들을 征服하면서 레나江을
下航 現在의 야쿠즈크地方에 到着하였으며 여기서 그는 그後 地方
的 中心都市로 된 야쿠즈크의 基礎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포트르·베케토프의 야쿠즈크遠征과 前後해서 만가제야르부터의 遠
征隊는 앙가라 빌류이 兩江을 따라 東進하였다. 이리해서 露西亞人

들의 레나江地方으로의 進出은 1632年頃부터 活潑化하였다. 이와 같이 遠征的 進出이 活潑하여짐을 따라서 레나江沿岸等의 여러 要所에는 많은 柵寨等의 軍事施設이 設定되었다. 그리고 1635년에는 예니셰이·코사크들에 依해서 레나江의 支流인 올레크마江口에 올레크민스키柵寨가 建設되었는데 이寨市는 初期에 貢租의 收納地로서 또는 아무르地方으로 向하는 軍隊의 集合地로서 重要的 구실을 하였다.

1636년에 톰스크에서 레나江地方으로 派遣된 드미트리·코플로프 隊長은 코사크들의 一隊를 거느리고 아르단江을 溯行 그 支流 마야江口에 부탈스코예冬營場을 建設하여 이를 活動의 拠点으로 삼았다. 그는 1639年 그가 引率한 部隊의 一部로 하여금 마야江을 溯航시켰는데 이支隊는 支流유도마江을 거쳐 울리아江으로 들어간後 이를 下航하여 오호쯔크海岸의 울리아江口에 冬營場을 設置하였다. 그뿐만아니라 이支隊는 該冬營場을 拠点으로 하여 北方의 타우이江口 그리고 東方의 우다江口까지 海岸地帶를 探查하였으며 이리해서 오호쯔크海에로의 交通路는 마침내 열리게 되었던 것이다.

라. 植民的 進出의 統一化

위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17世紀에 露西亞人들은 遠隔 且 廣大한 未開發地方의 主要部分을 比較的 短期間에 植民地化하면서 前進하여 마침내 오호쯔크海에 까지 到達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특히 레나江地方으로의 그들의 進出行動에는 統制力이 微弱하여

現地에 있어서의 官民關係가 錯綜하였을 뿐만 아니라 往往히 露西亞人들 相互間에도 衝突이 일어났다. 勿論 이와같은 狀態는 큰 國家的 損失을 招來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露西亞政府는 西伯利亞經營에 對한 從來의 態度를 바꾸어 統一的인 西伯利亞政策을 強力히 實施하겠금 되었다. 이리해서 特別任務를 갖는 總督이 任命되어 새로운 地方들에서의 軍務知事等의 行動을 特히 監督하도록 되는 同時에 예니셰이스크 만가제야 톰스크 및 其他地方의 軍人들이 함부르 레나地方에 旅行하는 것을 禁止하겠금 되었다.

이와같은 統一政策에 依從하여 1640年 레나江畔에는 獨立한 야쿠즈크政庁이 開設되었는데 이는 要컨대 레나江地方行政 組織의 中心이 創定되었음을 意味하는 것이었다. 레나江地方은 帝政露西亞勢力東漸의 尖端部였으며 年代的으로도 比較的 뒤늦게 植民地化되었기 때문에 그 狀態는 西部 西伯利亞의 植民地化地方과는 自然 相異한 바가 없을 수 없었다. 더우기 레나江地域과는 캄차카에 이르는 廣大한 未開發地域이 連接하여 있으며 따라서 야쿠즈크政庁의 所管에는 極히 困難한 課題들이 많았다는 點으로 미루어서 西伯利亞統一策의 必要性은 -레나江地方에 關한 限- 더욱 切實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征服的 植民地化의 狀態는 地域에 따라 반드시 同一할 수가 없음은 勿論이며 따라서 이들에 對한 國家的 施策에도 具體的差異가 있었음은 當然하다고 하겠지 마는 오비江地方에 있어서의 톰스크政庁 예니셰이江地方에 있어서의 예니셰이스크政庁 그리고 레나江地方에 있어서의 야쿠즈크政庁이 創設되었다는 것은

西伯利亞의 地理的事情 特別히 河川系統에 依한 地域區分의 意味를 多分히 內包하는 事實이기도 하였다.

17世紀中葉에 이르러 上述과 같은 西伯利亞統一政策이 나타난 것은 一面에 있어서는 帝政露西亞의 西伯利亞에서의 征服線이 大體로 西쪽의 烏拉山脈에서 東쪽의 鄂畢江海岸으로까지 延長되고 그 支配圈이 西伯利亞의 全領域으로 擴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全體 西伯利亞의 行政的統一 實現이 切實히 要求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他面에 있어서는 歐露邊境地方에서 鄂畢江地方까지의 植民地化가 大略 成就된 以後 無統制的으로 行해져 온 征服的 植民活動의 諸成果를 國家權力으로서 統割하고 背後의 西伯利亞經營에 있어서의 官民의 活動을 國家的 方針에 맞게끔 調整하고 多數多種한 遠征에 依하여 多樣하게 植民化된 西伯利亞의 여러 領有地들을 統合하고 組織化함으로써 西伯利亞植民化의 永續的經營과 合理的統治를 保障함이 必要하였기 때문이었다. 勿論 廣大한 西伯利亞의 征服은 아직도 極히 概括的이고 그 地域內에는 遠征 乃至 探查를 더 必要로 하는 部分이 적지않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西伯利亞에 있어서의 支配圈은 包括的이고 그 地域內에는 많은 異種住民들이 살고 있었으며 이들 異種들에 對한 支配關係는 加一層의 順化促進的施策을 必要로 하였던 것이다.

本國으로서의 歐露와 植民地로서의 西伯利亞와의 政治的 關係에는 複雜微妙한 問題들이 介存하여 있었는데 이러한 困難한 問題들은 帝政露西亞의 西伯利亞에 對한 統一的 植民政策에 依拠하여 妥當

適切하게 解決되지 않으면 안될 터이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帝政露西亞의 植民的 擴張政策이 武力的 遠征에 依한 征服的 植民活動의 段階에서 廣大한 西伯利亞全域에 對한 探險 및 探査가 植民地化 乃至 植民的開發을 爲한 그리고 未知 未開發地域에 있어서의 諸課題의 解約 및 解決을 爲한 先行的 基礎的 要件으로 되는 그러한 所謂 建設的 植民活動의 段階으로 進展移行하면서 있었다는 事實을 着取할 수가 있을 것이다.

마. 探險·探査活動

帝政露西亞의 西伯利亞統一政策에 依拠하여 設置된 야쿠츠크政庁은 레나江地方의 中心的 行政機關으로 되는 同時에 레나江流域 및 遠東地方에 있어서의 探査 研究 등의 根拠地로 되었다. 야쿠츠크政庁이 開設된 後 所謂 西伯利亞統一政策에 依拠하여 西伯利亞 東部に 對한 探險 探査事業이 자주 計劃되고 또 잇따라서 實施되었다.

이와같은 探險活動은 結果에 있어서 新發見地方에 對한 帝政露西亞의 支配權擴張을 爲한 手段으로 되었지만 그것은 또한 經濟的 利益을 目的으로 하는 따라서 産業上의 意義를 갖는 活動이기도 하였다. 그當時 特히 注目을 끌었던 特産物로서 『리비·주브』(海象牙)라는 것이 있었는데 高價한 이 特産物을 獲得하려는 慾望으로 말미암아 探險事業은 적지않은 刺戟을 받았다고 한다.

이미 勃興하기 始作한 探險事業은 多大한 犧牲 困難 乃至는

뜻밖의 災厄等에도 不拘하고 끊임없이 繼續되었으며 例컨대 1648 年에는 大規模的인 探險隊가 編成되었다. 이 때에 產業家들은 7 隻의 船舶에 約 30 名씩 分乘 東北 最邊境의 아나디리江探査를 爲 하여 同年 6 月 콜리마江口에서 東쪽으로 航進하였다. 이윽고 4 隻을 喪失한 後 S.I. 데지네프 등의 指揮下에 남은 3 隻이 航海를 繼續하였다. 그들은 多大한 犠牲을 무릅쓰고 萬難을 물리치면서 마침내 츄코쯔키半島에 到達 아나디리江地方을 探査하였다. 이때에 그들은 불쇼이·카멘너·노스와 베링海岸에도 到着하였던 것으로 推定된다. 事實이 그렇다고 한다면 데지네프 등은 丁抹의 探險家 베링보다도 훨씬 앞서서 베링海를 發見하였던 것으로 되는 것이다.

17 世紀中葉 以後에 있어서의 西伯利亞 東北部에로의 探險 探査活動은 海路에 依해서 뿐만 아니라 陸路 및 河川路에 依해서도 行하여졌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遠征的 探險에 依한 露西亞人들의 東方進出은 17 世紀 中葉에 야쿠쯔크를 主要 根拠地로 하여 東北方 乃至 東方의 沿海地方을 向하여 繼續되었다. 이와 同時에 그들의 遠征的 探險에 依한 進出은 레나江上流地域 나아가서는 아무르江地方을 向해서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遠征的 進出은 帝政露西亞의 統一政策上 重要な 意義를 갖는 것이었을 뿐 아니라 이윽고 隣接 國家와의 國際的 接觸 衝突 乃至 交渉을 誘發하지 않을 수 없는 性質의 것이었다.



第五章 露西亞의 아무르進出과 露淸(中)의 遭遇

가. 露西亞의 아무르進出

西伯利亞 東部海岸으로의 交通路發見을 爲한 露西亞人들의 活動은 17世紀 40年代에 있어서의 商業的 企業意慾의 昂揚에 因由하는 바 없지 않았지만은 아무르江으로의 交通路 發見을 爲한 活動도 또한 같은 事由로 말미암아 積極化하였다. 그리고 露西亞人들의 아무르江地方으로의 進出은 西伯利亞全域의 植民地化라는 點에 있어서 뿐 아니라 同地方의 地理的探險 乃至 探查라는 點에 있어서도 劃期的 意義를 갖는 일이었다. 西伯利亞 四大河川의 하나인 아무르江(黑龍江)은 다른 3河川과는 流路方向을 달리하고 있다. 露西亞人들이 아무르江系統에 注目을 하게 된것은 그位置 地形等の 關係로 해서 比較的 뒤늦었음이 事實이지만은 이에 關한 情報가 모스크바에 傳達된 以後 아무르地方에 對한 官民의 關心은 漸次로 높아져갔다. 初代軍政官 표트르·골로빈이 V.D. 보야르코프에게 레나江에서 아무르江系의 헐카江으로 通하는 交通路의 探查를 命命한 以來 야쿠츠크를 根拠地로 하여 南方으로의 交通路探查와 權力的 進出을 爲한 活動이 俄然히 積極化하였다.

레나江地方의 露西亞人들에게는 훨씬 東쪽에는 아무르라는 大江이 있다는 것 그流域에는 土着的 異種人들이 古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地方에는 資源이 豊富하다는 것, 특히 盜獵 毛皮獸等이 많다는것 등이 퉁구스人들을 通하여 이미 알려져 있었다. V.D.

보야르코프는 1643년에 약 130인의 코사크들로 編成된 遠征的 探險隊를 引率하고 야쿠츠크를 出發 레나江本流를 下航하여 알단江으로 들어가고 이를 溯航하여 그支流 우출江으로 옮겨가고 다시 이를 溯航하여 土着的 住民들을 攻擊하면서 스타노브이山脈을 넘은 後 제야江에 到達하였다. 이리해서 아무르江系로 들어 갔던 그들은 1644年 봄에 제야江과 아무르江本流를 下航 同江口附近에서 越冬하고 다음해인 1645년에 오흐츠크海를 北上 울리야江口에 上陸하여 越冬하였다. 여기서부터 그들은 울리야江을 溯航하고 連水陸路를 거쳐 마야江上流로 나아가고 알단江을 下航하여 다시 레나江本流를 溯航함으로써 1646年 여름 야쿠츠크로 歸還하였다.

이로부터 數年後인 1649年 E.P. 하바로프는 야쿠츠크政厅의 許可를 얻어 70餘인의 코사크들을 거느리고 레나江本流에서 支流을 레크마江을 溯航한 後 連水陸路를 거쳐 아무르江系에 到達하였다. 그러나 이 地方의 土着住民들은 露西亞人來襲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으며 遠征的 探險隊의 通路附近 住民들은 모두 森林속으로 遁入避難하였었으며 따라서 하바로프의 遠征的 探險隊는 다만 地理的 探査를 할 수 있었을 뿐 遠征的 成果를 걸우지 못한 채 歸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失望 斷念하지 않은 그는 1951年 百數拾名의 狩獵者들을 모으고 여기에다 야쿠츠크의 코사크들을 合勢시켜 약 400인의 遠征的 探險隊를 編成하여 아무르江地方으로의 第二次 出動을 敢行함에 이르렀다. 軍政官 D. 프란츠 . 베코프로 부터 하바로프에게 주어진 指令에는 『可及的 平和的인 方法으로

原住民들을 露西亞에 服屬시키라. 다만 原住民들이 服屬을 拒否할 境遇에는 武力을 使用하여도 無妨하다』고 하는 內容의 것이었다. 그러나 哈巴羅프의 本來의 目的은 돈벌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原住民들의 村落을 燒却하고 마음대로 掠奪을 하고 毛皮稅(야싸크)를 強徵하는 等 殘虐無道한 行動을 하였다. 이리해서 그는 原住民인 타울人들의 頑強한 抵抗을 擊破하고 알바진을 占領하였으며 齊亞江口 및 其他 重要地點들에는 寨市建設의 基礎를 設定하였다.

나. 露·清(中)의 遭遇

그는 그後 아무르江을 下航하여 아찬이라는 地點 即 淸人들의 所謂 우갈라村에 拠点을 마련하였는데, 이것은 아마도 哈巴羅프스크에서 約 200 數十軒 程度 下流의 地點이었을 것이다. 이때에 原住民들은 淸國政府에 救援을 要請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서 다음 해인 1952年 3月에 淸의 寧古塔(닝구타) 駐屯軍 海塞將軍이 『兵을 거느리고 黑龍江으로 가서 羅刹(로차)와 싸워서 敗績(敗北)하여 海塞는 誅를 當하였다』 即 海塞(하이사이)는 敗戰의 責任을 지고서 處刑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露西亞와 淸國이 武力衝突을 한 最初의 戰爭이었다. 籠寨를 한 露西亞人은 206名 攻擊을 한 淸國側 兵力은 約 1,500名이었다고 하지만 露側은 全員이 小銃을 갖고 있었음에 反하여 淸側은 全體로서 小銃 30挺 砲 6門에 不過하였다고 함으로 火力에는 大差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 結果로 戰死는 露西亞가 10인대 對하여

淸은 676으로서 싸움은 淸의 慘敗로 끝났다. 淸國은 큰 衝擊을 받았으며 서둘러서 火力의 增強策을 講究하지 않을 수 없었다.

1653年 여름 모스크바에서 派遣되어 온 D. 지노비에프는 하바로프에게 그를 解任 모스크바로 召喚하는 命令을 傳達하였다. 이것은 그의 亂暴無雙한 行績이 크게 喧傳되어 모스크바로서도 그대로 放置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한편에 있어서 아무르江의 富源에 關한 評判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리로 모여드는 露西亞人들의 數는 漸漸 더 增加하였다.

1653年 여름 지노비에프는 하바로프의 後任으로서 O. 스테파노프를 아무르江地區의 隊長으로 任命한 後, 모스크바로 歸還하였다.

하바로프가 黑龍江流域을 征服한 뒤를 이어서 스테파노프는 이 占領地에 對한 統治를 確立하여야 할 터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容易한 일일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南쪽에는 大清(中)國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스테파노프는 1653年에서 1658年까지 船團을 編成하여 黑龍江(아무르) 松花江(송가리) 우쭈리江을 遊代하면서 原住民들로부터 毛皮稅 食糧等을 強徵하였다. 이에 對하여 淸國은 于先 松花江上에서 스테파노프軍을 攻擊 退散시켰는데 이것은 1654年6月의 일이었다. 이 松花江戰鬪에 關한 記錄은 淸國의 資料에서는 全然 發見되지 않치마는 우리國史關係의 文獻에는 仔細한 記錄이 남아있으며 이 記錄은 또 露西亞資料와도 一致한다고 한다. 이것은 李祖孝宗때의 일이었지마는 그 當時 우리나라는 淸國側의 要請을

따라 應援兵을 派遣했었기 때문에 이 戰鬪에 關한 記錄이 남겨질 수가 있는 것이다.

1654年 正月 國境都市 義州에 清國의 急使가 到着하였다. 使命이 무엇이냐를 물은즉 『援軍을 請하기 爲해서』라고 答함으로 『어디로 派遣하는 것이냐』고 다시 물은즉 使者는 다만 손으로써 北쪽을 가리키기만 하고서 서울을 向하여 말을 달렸다. 그러므로 우리 國內에서는 明朝가 다시 勢力을 挽回하고 있지 않나하는 風說이 떠돌기도 하였다고 한다. 清朝의 要請書에는 『羅禪(로찬)을 討伐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3月 10日까지에 鳥槍(小銃)을 잘 쓰는 朝鮮兵 100名을 寧古塔의 昂邦章京 살흐다에게로 派遣하시기 바람』이라고 써여 있었다. 孝宗은 出兵을 承諾하고 邊을 司令으로 하는 150名(그中 銃砲手는 100名)을 派遣하였다. 朝鮮兵部隊는 4月 3日에 寧古塔에 到着 살흐다의 指揮下에 들어갔으며 同月 27日에 松花江으로 航進 28日에는 露西亞艦隊와 遭遇하여 交戰을 하였다. 露西亞側을 300石積載의 巨艦 13隻 小船 26隻 兵力은 男女合하여 約 400名이었음에 對하여 清側은 17人乘의 大船 20隻 4.5人乘의 小船 140隻 兵力은 約 1,000名이었다고 한다. 이 戰鬪에서 清軍은 露西亞의 巨船에 對抗하는데는 江岸에서 射擊을 하는 편이 有利하리라고 해서 上陸을 하여 高地에 陣을 치고 礮臺를 파고서 그 뒤에서 射擊을 하였다고 한다. 이로 말미암아서 露西亞軍은 多數의 死傷者를 내고 彈藥도 不足하여 졌기때문에 5月 2日에는 드디어 退却을 開始하였다. 清軍은

數百里나 이를 追擊 數面의 交戰이 있는 끝에 5月5日 露軍은 바람을 타고 아무르江을 遡航하여 遁走하여 버렸다. 이리해서 勝戰을 한 朝鮮軍部隊는 全員 無事히 凱旋의 길에 올랐었는데 아마도 이는 8月의 일이었을 것이다.

司令인 邊茂는 歸國後 國王孝宗에게 面謁하였을 때 羅禪에 關한 下問에 對하여 『그 容完은 모두 蠻賊과 類似하였어 아옴고 衣服은 모두 누런 비단이었나이다. 생각하옵건대 이 賊들은 반드시 西洋國으로부터 왔아올 것이로소이다』라고 奉答하였다고 한다.

스데파노프는 우스치크마르스크 卽 呼馬兒(호말루)城에서 越冬하였다. 1654年 12月 淸朝는 明安達理(밍안달리)를 北京으로부터 派遣하여 이를 攻圍시켰다. 1655年 3月 13日(舊曆) 그는 이 城에 對한 攻擊을 開始 全火力을 이에 集中하였다. 同月 24日에는 各種의 攻城用器材를 動員하여 4方에서 城을 攻擊하였다. 露西亞側은 淸軍을 國近距離까지 接近시킨 後 猛烈한 射擊을 加하고 突擊을 敢行함으로써 淸軍에 大打擊을 加하고 銃器彈藥과 攻城用器材等を 鹵獲하였다.

이때의 淸軍의 兵力은 約10,000名이었다고도 하고 或은 實際에 있어 3,000名程度에 不過하였다고도 한다. 그後도 淸軍은 밤낮으로 砲擊을 繼續하고 있다가 4月 4日 突然히 包圍를 풀고서 退却을 하여 버렸다. 康熙帝는 이 戰鬪에 있어서의 明安達理의 經率한 舉措와 戰術을 批判한 바 있었다. 如何든 여기에서도 攻城戰에 있어서는 防禦의 露西亞가 強하고 攻擊의 淸國이 弱하다는

것이 實證된 셈이다.

同年 여름에 스테파노프는 黑龍江 松花江 및 우수리江沿岸에서 毛皮稅와 食糧을 強徵하였으며 同年 겨울에는 黑龍江口附近의 코소플 柵寨에서 冬營을 하였다. 1656년에 스테파노프는 다시 黑龍江을 遡航하였지만 주첼人等은 이미 強制 移往을 당하여 黑龍江의 上·中流沿岸은 無人地帶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毛皮稅와 食糧等의 徵收가 不可能하였다.

1657년 겨울 크만스키에서 越冬을 한 스테파노프는 1658년 봄에는 다시 黑龍江을 遡航하여 갔으며 6月 30日 그의 軍隊는 松花江의 合流點 附近에서 淸國軍과 衝突을 하였다. 淸國의 記錄에는 松花江과 庫角濶江의 中間에서 露軍을 擊破하였다고 되어 있을 뿐이지만 이 戰鬥에 關해서도 朝鮮側資料 卽 『同文彙考』에는 仔細한 記錄이 남아있다.

1658년 2月 淸帝는 朝鮮國王에게 親書를 보내어 羅刹(로차)討伐을 爲해서라고 하면서 馬槍(小銃)을 잘 쓰는者 200名에게 必要한 物品을 携行시켜 이들을 5月初까지에 寧古塔으로 派遣하도록 要請하였다. 朝鮮側은 이를 受諾하고 申?劉가 指揮하는 262名(그中 銃砲手는 200名)의 部隊에게 3個月分 食糧을 주어 出發시켰다.

朝鮮軍의 合流를 얻은 淸國軍은 寧古塔을 出發하여 6月 5日에 乘船하였다. 淸國軍은 6月 10日(陰曆)에 黑龍江에 到達하였으며 바로 그當日에 露西亞船團과 遭遇하여 온 終日 交戰을 繼續

하였다. 이 戰鬪에 있어서 淸軍의 射擊에 壓倒 當한 露西亞兵들은 尙尙罔措하여 或은 배안으로 숨기도 하고 或은 배밖으로 逃亡쳐 나가기도 하였다. 淸國軍은 乘機乘勢하여 露西亞側의 船舶 10 隻을 燒却할 수가 있었지만은 單 1 隻만은 夜陰을 타서 逃亡해 버렸다고 한다. 露西亞側의 資料에 依하면 여기서 스테파노프以下 220 名이 戰死하고 爾有의 黑貂毛皮 3,080 枚 砲六門 彈藥軍旗 및 食糧等이 실려있던 배들을 喪失하였지만은 1 隻만은 救助되었으며 이 배는 95 名을 태우고서 바다로 脫出하였다고 한다. 其他의 殘餘 露西亞人들은 散之四方하여 흐터져 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의 戰鬪에서는 朝鮮側의 軍人 8 名이 戰死하고 25 名이 負傷하였다. 相當한 激戰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스테파노프軍을 潰滅시킨 後에도 淸國은 黑龍江의 全域을 確保하기 爲한 努力을 繼續하였으며 特히 下流方面으로 遠征軍을 보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淸朝는 여태까지 勢力이 미치지 못하였던 烏賚(使犬國)과 吉拉柯(費牙客)를 그의 支配下에 둘 수가 있었다. 이리해서 使犬國의 替 齊軍(틸루쿠)와 巴禪(파하찬)等도 入貢을 하게되고 黑龍江에서 露西亞人들을 一掃하려고 하는 淸朝의 作戰은 一段落되었다. 黑龍江 上流地方의 슬론部族과 黑龍江部族의 族長들도 淸朝에 많이 入貢을 하게됨으로서 淸朝는 一旦은 黑龍江의 支配를 恢復한 셈이었던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北方의 곰』과 『中原의 獅子는 黑龍江에서 運命的인 邂逅相逢을 하였다. 이것은 露西亞와 淸(中)國

이라는 兩大國의 運命뿐 아니라 우리 韓民族의 運命과도 關聯되고 나아가서는 全人類의 運命과도 關聯된 가장 重大한 歷史的 事實이 아니면 아니된다. 그리고 우리의 李朝 朝鮮軍이 1654年과 1658年의 兩次に 걸친 黑龍江=松花江戰鬪에 直接 參加하여 赫赫한 戰果를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은 큰 象徵的 意義를 갖는 또하나의 歷史的 事實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以上에서 우리는 露西亞人들의 植民的 東方進出 即 東方에로의 그들의 植民的 擴張過程을 比較的 詳細하게 追跡하였다. 위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우리가 露西亞의 東方政策 그의 對中國政策 乃至 對韓半島政策을 올바르게 理解把握할 수 있기 爲하여는 우리는 露西亞勢力의 東漸過程을 綿密히 分析評價하고 正確히 判斷把握할 必要가 있을 터이기 때문이다. 以上の 우리의 敘述은 어느 程度 細密을 期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代身 그것은 比較的 雜然하고 張皇하다는 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露西亞의 西伯利亞併呑=征服過程을 가장 簡略하게 要約 論述할 必要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다. 하나의 要約

露西亞人들은 毛皮를 追求하느라고 西伯利亞로 進出을 하였던 것이라고 말들을 한다. 毛皮의 追求란 것이 露西亞人들의 東方 進出을 爲한 唯一한 動因이었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몇 가지 動因들 中の 하나이었다는 事實은 承認될 수가 있다. 毛皮는

露西亞政府의 有力한 財源이었는데 그것이 國庫收入의 10分之1을 占하고 있었다는 點으로 미루어서 그 比重이 얼마나 컸었는가 함을 우리는 손쉽게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이 毛皮는 歐洲로 輸出되어 그곳 毛皮市場을 支配하고 있었으며 國內에서도 毛皮는 貨幣의 役割까지를 하는 重要한 商品이었다. 그런데 이 毛皮資源이 歐露에서는 漸次로 枯渴하게 되었기 때문에 東方에로의 進出은 不可避하게 되었다.

于先 西部 西伯利亞로 進出한 露西亞는 金帳汗 系統인 쿠츨의 씨비리汗國과 長期에 걸친 交渉과 戰鬥을 繼續하였다. 이반 4世는 쿠츨과의 外交交渉에 失敗한 後 씨비리를 討伐하기로 決定하였다. 그러므로 해서 그는 T. 예르마크의 씨비리國遠征을 積極적으로 援助하였으며 後者の 要請에 應하여 遠征隊를 直接 派遣하기까지 하였다. 예르마크는 1578 年에 遠征을 試圖하여 一時 씨비리國을 占領까지 하였었지만 1585 年에는 奇襲을 받아 戰死하고 말았다. 그러나 大勢는 漸次로 露西亞에게 有利하겠금 움직여갔으며 1598 年에는 쿠츨軍은 壤滅되고 西部 西伯利亞에 있어서의 露西亞의 勢力은 크게 擴大되었다.

이리해서 露西亞人들은 더욱더욱 東方으로 進出하여 갔으며, 人口가 稀薄한 廣漠한 西伯利亞 大平原을 完全히 征服하여 버렸다. 그러나 露西亞는 이를 爲해서 大兵力을 움직였던 것은 아니었다. 오비江流域의 西部 西伯利亞를 征服하기까지는 모스크바의 中央政府가 直接 征服計劃을 세우고 責任을 지고서 그 計劃을 實施하여

왔던 것이지만은 이로부터 깊숙히 東쪽으로 前進하여 감에 따라서 政府는 征服計劃을 指導할 能力과 可能性을 喪失하게 되었다. 이 段階에 있어서 제일 큰 役割을 遂行하진 않은 것이 코사크의 小部隊와 移住農民의 小集團이었으며 그 背後에는 私腹을 채우려고 하는 地方官吏들이 있었다.

A. 게르첸은 露西亞의 西伯利亞併呑은 거의 피를 흘리지 않은 征服이었다고 主張한 바 있다. 그리고 白人들에 依한 北部 아메리카의 開拓과 露西亞人들에 依한 西伯利亞併呑과를 比較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北部 아메리카에 있어서의 植民的 擴張은 原住民인 인디안들을 죽이던가 奧地로 쫓아버리던가 해서 土地를 確保하는 方法에 依한 것이었다. 이와는 달리 露西亞人들은 農業 植民者로서 西伯利亞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 코사크人들의 小集團들이 여러 江岸地帶에 冬營地를 設定하고 그 附近에서 菜園程度의 農耕地를 開拓하기도 하였지만은 이것은 決코 그들의 經濟的 基礎를 이루고 있지는 않았다. 그들의 經濟的 基礎는 毛皮를 徵集하는데 있다. 毛皮는 狩獵이나 收買에 依해서도 求得할 수가 있었지만은 가장 簡單 有效한 方法은 土着民들을 強制하여 毛皮를 貢納케 하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해서 露西亞人들은 土着民들을 -아메리카·인디안의 境遇와는 달리- 함부로 죽이지 않았다. 게르첸의 主張이나 後者의 見解는 다같이 一理가 없지 않다. 그러나 露西亞人들의 東進的 植民活動은 決코 無血的 平和的 性格의 것이 아니라 基本的 本質的으로 武力的 征服的 性格의 것이었으며 따라서 그들의 植民的 擴張과 西伯利亞征服은 많은 西伯亞季 弱小種族들의 犠牲을 不可避的으로 隨伴하였던 것이다.

코사크와 移住農民等の 集團이 어떤 地域에 占住하게 되어 一種의 既成事實이 이루어지면 이地域은 모스크바의 行政組織에 編入되고 都市가 建設되며 公務員들을 거느리고 地方長官(보예보다)이 來任한다. 西伯利亞에서는 地方長官 官吏 商人 聖職者 및 西伯利亞 原住民의 族長等이 上層階級을 이루고서 農民 코사크 手工業者 小商人 一般原住民等を 支配하고 있었다.

露西亞人들의 東進的 植民活動 即 西伯利亞併合工作은 不眠不休 놀랄만한 速度로 進行되었다. 歐露에서 政治的 混亂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들의 西伯利亞 進出活動은 中斷된 일이 없었다.

北部. 아메리카의 開拓이 大西洋에서 太平洋까지 約 200 年이나 걸렸음에 對하여 露西亞人들은 烏拉山脈을 넘어서 부터 오호즈크海에 到達하기까지 60 年 밖에는 걸리지 않았다.

이와같은 빠른 速度를 낼 수 있었던 理由는 첫째로 露西亞人들은 毛皮獸가 가장 豊富한 타이가(密林)地帶와 툰드라(凍土)地帶를 前進하였는데 人口가 稀少한 이地帶들에서는 抵抗이 또한 微弱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로는 露西亞人들이 露西亞의 特徵的 河川系統을 能熟하게 利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비예니씨이 케나等 三大河川의 支流들은 낮은 分水嶺으로 隔離되어 있을 뿐이기 때문에 片舟輕船을 이끌고 이分水嶺을 넘음으로써 다른 갈래의 江으로 손쉽게 옮겨 갈수가 있다.

그러므로 露西亞人들은 一種의 廣範한 交通網을 形成하고 있는 그들의 河川路를 예로 부터 크게 利用하여 왔음이 事實이다. 그리고 江과 江을 잇는 分水嶺의 陸路를 가리켜서 連水陸路(보울력)라고 부른다. 이리해서 露西亞人들은 이들 連水陸路를 連結的으로 利用前進함으로써 1638-1639年에는 마침내 太平洋岸에 到達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北部아메리카와 比較해서 또하나 相異하다고 할 것은 아메리카의 白人들은 텍사스를 除外하고는 그리 강한 原住民의 抵抗을 받은 일이 없었지만 露西亞人들은 西伯利亞에서 많은 異種遊牧民들의 강한 抵抗을 받았을 뿐 아니라 黑龍江에서는 大清(中)國과 正面 衝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같이 西伯利亞에서는 이 以上 더 東進하기는 어려워졌기 때문에 露西亞人들은 更一層 東쪽으로 前進 北太平洋에서 北部 아메리카로 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露西亞는 黑龍江地方에 對한 그의 計劃과 野心을 簡單히 拋棄할 수가 없었음은 勿論이다. 그러므로 所謂 아무르問題는 17世紀半 以後 露清(中)간의 複雜하고도 困難한 問題로서 提起되고 또 展開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르問題와 交易問題等を 中心으로 한 露清(中)關係의 歷史的 展開過程에 對한 우리의 論述은 이를 後日로 미루고 여기서는 一旦 이로써 擱筆을 하기로 한다. 이미 予定된 紙面을 超過하여 버렸기 때문이다.

